COLORCODE®
칼라코드팝으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NO.214
Korea.kr/gonggam
2013.06.24

Weekly 공감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기획특집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 대한민국'

실내&무도아시안게임 홍보대사 차유람 "이번 주말 인천에 오세요"

풍수해보험 들었더라면…

황명석
어민 · 전남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전마을은 22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전복 양식을 통한 수입으로 자녀학비를 대고 집안을 건사하고 있지요. 우리 마을은 전복 양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해남군 내에서 가장 못사는 동네였습니다. 논이나 밭이 거의 없어 농사를 통한 수익은 기대하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외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전복 양식을 시작한 후 마을에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남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촌이 됐지요. 소득이 높아지자 외지로 나간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 5~6명 정도가 전복 양식을 하기 위해 귀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은 이런 우리 마을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날입니다. 8월 28일 새벽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볼라벤이 마을을 휩쓸고 갔지요.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전복 양식장을 살피러 나갔더니 90퍼센트 정도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더군요. 겨우 10퍼센트만 수리를 해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마을 주민들은 한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담하더군요.

더구나 마을 사람 대부분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볼라벤이 오기 전까지는 태풍이 불어도 피해가 없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요. 정부에서 70퍼센트나 지원해주는 보험인데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당시 정부에서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가구당 몇억 원씩의 손해를 본 터라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분명 재기의 힘이 됐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발판으로 저와 마을 주민들은 이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시 전복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태풍 볼라벤이 휩쓸고 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어부들은 다른 걱정 없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와 마을 주민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볼라벤과 같은 자연재해로 다시 삶의 터전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그날을 계기로 주민 모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불가항력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자연재해는 미리 대비하면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어민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어부들은 다른 걱정 없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겁니다. G

12

16

52

54

기획특집

내 가족과 이웃 지키는 꼼꼼한 재난대비

2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D–5

표지 이야기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홍보대사인 당구 종목의 차유람 선수. 차 선수를 비롯해 120여명의 우리나라 남녀 국가대표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6월 29일 개막해 7월 6일까지 인천시와 주변 도시의 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사진 · 연합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06. 2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8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이 기사!

손톱 밑 가시 뽑기 인상적

213호 기획특집 '손톱 밑 가시 뽑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정부가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성장날개' '희망의 사다리'와 같은 표현이 그동안 실제로 잘 와 닿지 않았는데 민원 신청 현장 기사를 읽고 정말 정부가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고충을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힐링센터 외에도 정말 국민이 언제 어느 때나 달려가서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면 '바꾸는 게 정답'이라는 〈위클리 공감〉의 기사 제목처럼 국민이 아무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런 기사 써 주세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전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클리 공감〉의 문화소식을 즐겨 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유익한 전시 소식을 전해 주시면 직접 찾아가볼 수도 있고, 또 지면을 통해 미리 몇 작품을 눈으로 즐길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전시 소식을 매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경(주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지난호를 읽고

골목상권 살아나고 소상공인 힘 얻길

211호 '뭉치면 대기업도 두렵지 않아요'를 읽고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시장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창조일지 모르지만 골목상권을 꾸려나가던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일입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내놓은 협동조합기본법은 환영할 만하다고 봅니다. 힘을 합쳐 골목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임용택(직장인·경기 광명시 광명동)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기다려져

월드컵·올림픽 등 큰 경기가 없어 아쉬운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보며 더위를 잊을까 합니다. 시원한 발차기의 킥복싱과 아름다운 댄스스포츠를 보면 축 처졌던 마음마저 새로워질 듯합니다. 실내카바디, 무에이, 크라쉬 같은 평소 생소했던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213호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기사만 봐도 인천이 들썩들썩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남홍희(취업준비생·경기 의왕시 내손동)

취업자의 잠재가능성 평가 긍정적

213호 '잠재력을 평가하라,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가동'을 읽고 이제 기업체의 채용 방식도 스펙 위주에서 경험과 역량 중심의 자질 위주로 변화돼야 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회사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과 실력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수한 사원이 되는 기준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스펙 위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잠재력, 직무 관련 능력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회사에 기여도도 높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채용 풍토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우점순(주부·부산시 북구 화명동)

국민의 불편 점차 해소되어 나가길

213호 '국민이 불편 느끼면 바꾸는 게 정답'을 읽고 몇자 적습니다. 불편하고 잘못된 관행은 고쳐나가는 게 당연한데도 구태의연하게 답습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각종 신고나 등록서류를 들고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각종 행정처리가 행정편의 위주로 흘러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고무줄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국민에 맞추어 나가는 의식과 제도의 변화가 절실하므로 꼭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최남이(자영업자·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알림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2013〉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정책 정보지 〈행복을 반올림하는 희망사다리 2013〉을 발간했습니다. 국민생활정책을 수혜 대상별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수혜자 맞춤형 정보 가이드입니다. 저소득층, 취업희망자·근로자, 소상공인·농어업인, 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노인, 장애인 등 대상에 맞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관, 보건소, 경로당, 소상공인단체, 고용지원센터, 여성단체 등 전국 2만여 다중이용장소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주요 배포처
- ▶사회복지관, 전국 보건지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로당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센터, 여성단체 등
-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 등
-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한국YMCA 지사 등
- ▶읍·면·동 주민센터, 우체국 등

온라인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korea.kr/gonggam) 및 탭진에서 디지털매거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 02-3704-9828

2013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

환경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확산하고자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대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응모부문 환경부에서 발간한 행정 간행물 일반 출판사 발행 환경 관련 도서

시상내역 최우수상 각 1명 상금 100만원, 우수상 각 2명 상금 50만원, 장려상 각 5명 상금 10만원

응모일정 8월 30일까지

응모요령 홈페이지 내 원고지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등록
- ●초등학생 : 1~3학년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4~6학년은 200자 원고지 7매 내외
- ●중·고등학생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일반 : 200자 원고지 12매 내외 또는 A4 용지 2매 내외 중 택1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library.me.go.kr/bookcontest
- ●우편 접수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59-1 서울상의동부지소빌딩 6층 환경보전협회 홍보사업과 '2013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 담당자 앞

문의 '2013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 사무국 ☎ 02-3407-1537

낱말맞히기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14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7월 8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여름철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그렇게 내리는 비.
3 폭풍우와 홍수 피해. "정부 부처 협업으로 ○○○ 같은 재난을 대비한다."
5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의 호는?
7 놋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이나 절에서 쓰는 밥그릇, 소나 말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8 두 해.
9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이르는 말. "에너지 사용 제한, 절전 등으로 올여름 ○○○○에 철저히 대비한다."

세로 풀이
2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1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 천연기념물 423호.
3 바람의 세기. 바람의 힘. ○○발전.
4 삿갓 모양의 몸에 수많은 촉수가 늘어져 있으며 독침을 쏘는 강장동물. "해수욕장의 불청객 ○○○ 피해를 막아라!"
6 풍수해 등으로 산 중턱의 바윗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
7 어떤 분야에서 지침이 될 만큼 권위가 있는 책.
8 나란히 또는 가까이 서로 붙어 있음. 가까이 사는 집이나 사람.

〈위클리 공감〉 212호(6월 10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절약 **3** 도전 **4** 보리 **5** 종일 **6** 기본 **8** 시간제
세로 **1** 절전 **2** 현충일 **3** 도리기 **5** 종량제 **7** 본시 **9** 간식

〈위클리 공감〉 212호 '공감 낱말맞히기' 당첨자
김상백(인천 남동구 담방로) **김선미**(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용준(전북 남원시 덕과면) **오동춘**(광주 북구 동문대로)
윤지상(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국정운영 패러다임

'정부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

개방형 행정개혁 '정부3.0' 비전 선포… 공공정보 연 1억건 사전 공개

#1

여행을 자주 다니는 김정호(가명)씨는 개인의 특성에 맞춘 여행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 자주했다. 판에 박힌 여행사의 추천 상품에 실망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성 있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면서 맞춤형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내다본 김씨는 아예 여행사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어렵고 막막했지만 날씨·교통·지리·숙박·소비패턴 통계 등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활용하게 되면서 일이 쉽게 풀렸다. 보유한 고객 데이터에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맞춤형 여행 상품을 개발했다. 입소문을 타고 김씨의 여행사에는 최근 '나만의 여행'을 만들어달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2

유현정(가명)씨는 2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주행은 제법이지만 주차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같은 도로를 네다섯 번 반복해서 도는 건 유씨에게 일상이다. 어쩌다 시내에 약속이라도 있으면 주차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관리하던 실시간 주차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 이후부터 유씨의 고민은 단번에 해결됐다. 비어 있는 주차 공간과 주차장 위치, 정산 요금, 운영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니 '주차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국민이 많아진다.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공공정보는 민간에 널리 개방되고, 국민은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적극 참여한다. 부처별 칸막이를 거둔 정부는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관의 협치는 더욱 활발해지고, 소통의 결과물은 국정에 새로 반영된다. 국정 운영의 무게추가 정부에서 국민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 "정부3.0, 풍요로운 삶의 출발점 될 것"

박근혜정부가 그린 국정 운영의 미래다. 개방형 행정개혁 프로젝트 '정부3.0'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6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3.0은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정부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야 국민적 신

정부3.0의 비전과 전략

정부3.0의 중점 추진과제

1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 · 관 협치 강화

2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3 국민의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와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민과 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이제껏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하던 공공정보의 사전 공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31만 건 수준이던 공개 정보는 향후 연간 1억 건까지 늘어난다. 대상기관 역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에서 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보조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다. 지금까지는 목록만 공개하고 청구가 있을 때만 원문을 공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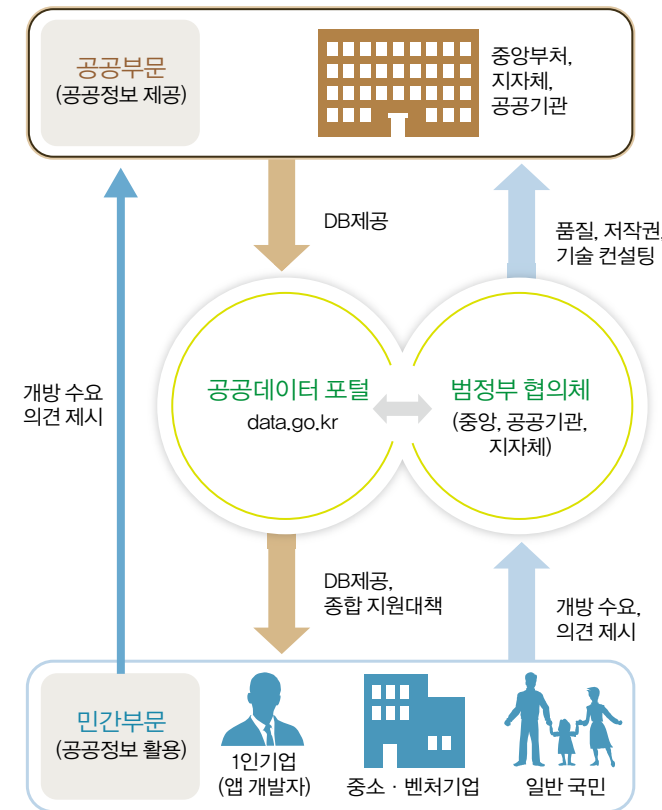
식품·위생, 치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주요 대상이다.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대표적이다.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 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천이나 도로 등 대형 토목공사와 지역 축제의 원가정보, 공사발주 세부내역 및 계약에 관한 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부채현황, 공기업의 경영실태와 업무추진비 등도 공개 대상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 15만개·경제효과 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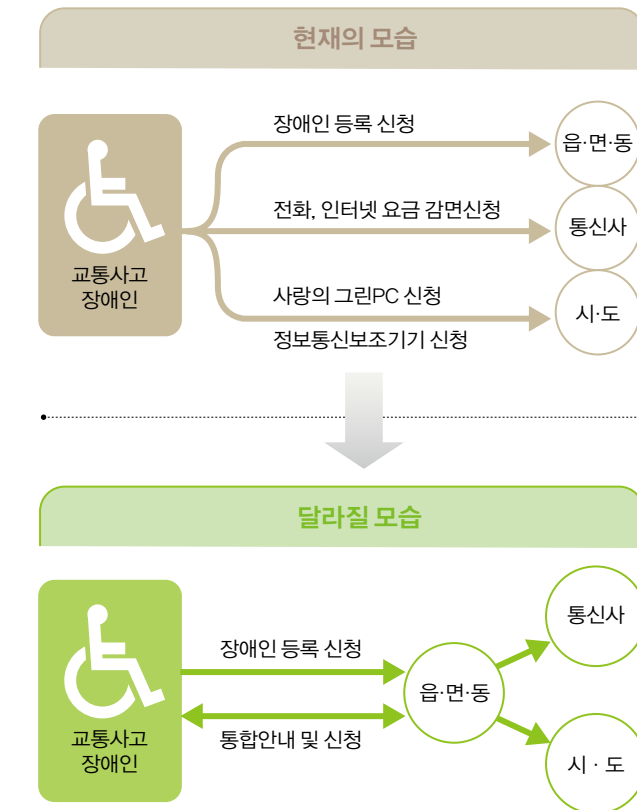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역시 대폭 개방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창조경제를 키우는 밑거름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부분이다. 창조경제는 국민들 사이에 아이디어가 넘치고, 그 아이디어가 산업 곳곳에서 경제의 활력소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2009년 당시 고교생이던 유주완씨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서울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의 교통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개발된 2,500여 종의 실시간 교통정보 활용 애플리케이션의 산파 역할을 했다. SK텔레콤과 네이버 등 민간 기업의 교통정보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는 우선 민간의 수요가 많은 기상·교통·지리·복지·국가재정 등의 공공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현재 2,260종 정도인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7년 6,150종으로 확대된다. 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해 국민들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방에 따라 약 1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문제 등이 우려되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민관협치(民官協治)를 강화해 온라인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의 계획과 의도에 국민이 따르던 과거와 달리 국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는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의 온라인 정책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국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가칭 '아이디어 마당')을 만들기로 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곳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열고, 투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지성'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드는 것도 정부3.0의 중요한 목표다. 먼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부터 해소한다. 140개 국정과제와 170개 협업과제 중 부처 간에 시스템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 협업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 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를 크게 늘린다. 또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퍼센트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해 국정·협업과제에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범정부 통합정원제'도 운영한다.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도 나왔다.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도처에 남긴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말한다. 우선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경제, 교통안전, 재난·재해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우선 일상에 필요한 각종 생활 민원서비스를 재정비해 편리한 이용을 돕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단 한 번만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생·입학·이사·병역·복지·사망 등 생애주기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번 등록으로 개인 민원 한꺼번에 맞춤형 처리

현 제도에서는 장애인의 민원처리가 상당히 복잡하다. 등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요금 감면신청은 각 통신사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은 시·도청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만 하면 나머지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을 이용한 안전행정부의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계획이 나왔으니 남은 건 실천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안행부 장관이 주관하는 정부3.0 추진회의와 실무회의를 신설하고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G

글·장원석 기자

벤처 1세대 노하우 국가자산 삼는다

멘토링 통해 성공·실패 경험 전수해 젊은 벤처 기업가 키우기로

벤처 1세대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벤처 1세대의 경험을 국가 자산으로 삼는 '벤처 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벤처 1세대를 중심으로 멘토단을 운영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방침이다.

NHN·다음·휴맥스. 2000년 벤처 열풍을 이끌었던 벤처 1세대 기업들이다. 이들은 신생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벤처 열풍을 일으키며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흥행을 일으키며 벤처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의 수는 3만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성공한 벤처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창업에 도전하는 20~30대의 젊은 청년 벤처기업인의 수도 줄고 있다. 벤처 1세대의 대를 이을 차기 벤처기업가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세대 벤처기업인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벤처 1세대의 경험을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벤처 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추진 계획'은 벤처 1세대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 활용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젊은 창업가들에게 벤처 1세대의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링의 장이 열린다.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일회성, 강의 위주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것이 큰 특징이다.

정부 계획에 공감한 벤처 1세대들도 멘토로 적극 나섰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추천을 받은 벤처 1세대가 멘토단으로 선정됐다. 멘토단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5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들로 꾸려졌다. 아토정보기술·퓨전테크·신지소프트 등 10개 기업이 상근 멘토로 활동하고 NHN·컴투스를 비롯한 37개 기업이 비상근 멘토로 참여한다.

미래부는 성공한 벤처 1세대뿐 아니라 실패한 벤처 1세대도 멘토로 선정해 멘토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살아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게 하려는 취지다.

최장 2년동안 매주 2~3회 실시할 멘토링 프로그램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 대학 창업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창업 멘토링'과 청년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애로 멘토링'이다.

'예비창업 멘토링'은 창업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위주의 교육을 할 계획이다. '현장애로 멘토링'은 청년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멘토링을 진행한다.

멘토들은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기술과 경영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멘토링 대상은 창업 준비 단계에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대학 창업 동아리와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청년 벤처가 대상으로 창업 동아리 20개 팀과 청년 벤처기업 20개사다. 이들은 벤처기업 CEO와 엔젤투자자·청년기업인·청년창업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멘티들은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멘토를 고를 수 있다. 멘토 1명당 2명의 멘티가 배정되며 우수한 성과를 내는 팀은 글로벌 벤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7월 중에는 서울 누리꿈스퀘어에 벤처 1세대 멘토 사무실이 마련된다. 이곳에서 멘토들은 벤처 동아리의 창업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초창기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벤처 1세대 재기 돕는 '재도전 전용펀드'

벤처 1세대와 대학·투자기관·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 1세대 포럼도 열린다. 이 포럼은 벤처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벤처 신화를 써나갔던 벤처 1세대의 경험을 소중한 국가 자산으로 남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창업의 성공 사례만 회자되는 상황에서 벤처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를 연구해 신생 벤처들의 실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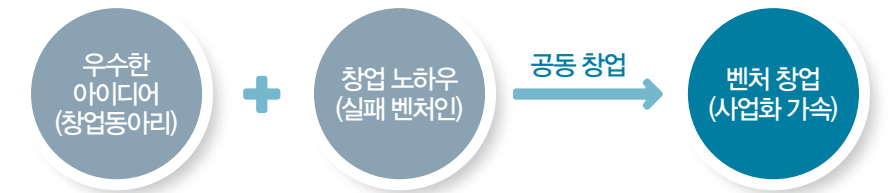
포럼은 연구회와 세미나로 나누어 추진된다. 연구회는 성공과 실패 사례 연구를 중점으로 벤처 1세대의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화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패 기업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벤처 1세대의 재기를 도모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열리게 된다. 기업과 정부·대학·투자 분야에서 벤처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인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추진 중에 있다.

미래부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벤처 1세대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 전용펀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G 글·김슬기 기자

멘토단 운영방식

코디네이터
상근 슈퍼 멘토
비상근 슈퍼 멘토
A소그룹 - 모바일 & 앱 청년기업 (예 : 8개 기업)
B소그룹 - IT기기 청년기업 (예 : 6개 기업)
C소그룹 -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모델 청년기업 (예 : 6개 기업)

벤처 1세대 재기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구분	대상자	교육·자문 내용
대학창업 동아리 예비창업 멘토링	20개팀	창업실행 위한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
청년창업가 현장애로 멘토링	20개사	글로벌 지향 청년창업가 기술·마케팅 멘토링

ICT 분야 주요 멘토링

사업명	사업내용	주관기간
프로보노 IT멘토링/프로젝트 멘토링	●IT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IT기업전문가, 지도교수가 멘토로 참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K-스타트업	●학생, 일반인, 기업을 대상으로 35개팀 선정 ●실무전문가 멘토링 10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테크노닥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파견 ●주 3일 이상 근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선도벤처기업을 통한 예비 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초기창업자 멘토링 ●1년 이내, 창업기업 6천만원, 선도벤처 3천만원 지원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벤처 7일장터	●월 1회 개최(멘티 25명, 멘토 10명) ●2010년 7월부터 총 28회 시행(멘티 1,117명 참석)	벤처기업협회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세무전문가를 통한 생애 첫 창업자에 대한 세무자문 ●최장 1년5개월간 세무자문 및 코칭	국세청
서울시 창업스쿨 창업 전문과정 멘토링	●창업전문가과정 수료자 중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1:1 멘토링 ●1년 이내 최대 3회 멘토링 제공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6·25전쟁은 물론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기억해야

중앙포토

“삼촌, 잊지 않을게요.” 지난해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고 조천형 중사의 조카가 전적비에 새겨진 삼촌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가장 많은 국가가 참전한 전쟁이었다. 월드컵의 열기에 취해 있던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은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희생, 젊은 병사들의 죽음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안으로 국가안보와 영토수호 의지를 되새기고 밖으로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세계에 되돌려주기 위한 기여에 눈 돌릴 때이다.

6월은 모란꽃이 피고 지는 달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전쟁을 기억하며 국가관과 애국심을 다짐하는 달이기도 하다.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은 정전·유엔군 참전 60주년이기도 하다.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모윤숙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의 한 구절이다. 작가 이호철은 “전쟁은 한번 벌어지면 그 여운이 천년을 간다”고 했고, 시인 성춘복도 “전쟁은 말이 없다. 이처럼 바람과 잔잔히 흔들리는 꽃잎밖에 없다”고 노래했다.

3년 1개월 2일간(1950. 6. 25~1953. 7. 27) 계속된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 전쟁이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6·25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사망 13만7,899명, 부상 45만742명, 실종 2만4,459명, 포로 8,343명의 피해를 입었다. 미국도 사망 3만6,940명, 부상 9만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피해가 컸다. 또한 군인과 무기로 참전한 16개국, 의료장비 지원 5개국, 물자만 지원한 40개국, 전후복구를 지원한 7개국 등 무려 68개국이 직·간접으로 우리나라를 도왔다. 당시 전 세계 93개국의 62퍼센트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도왔다.

그 외 참전국의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포로)도 컸다. 영국(4,908명), 터키(3,216명), 오스트레일리아(1,584명), 캐나다(1,557명), 프랑스(1,289명), 태국(1,273명), 네덜란드(368명), 그리스(738명), 에티오피아(657명), 콜롬비아(639명), 벨기에(440명), 필리핀(398명), 뉴질랜드(103명), 남아프리카공화국(43명), 룩셈부르크(15명), 노르웨이(3명) 등의 병사들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다.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 월턴 워커 장군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들을 참전시켰고, 그중에 전사자도 나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6·25 직접체험 세대(1세대)와 국사교육으로 학습한 세대(2세대)들이 차세대 청소년(3세대)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주어야겠다. 일부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는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에도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연평해전을 감행했다(1999. 6. 15, 2002. 6. 29).

제1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 4척의 침범에 대해 우리 해군이 ‘함미 충돌작전’으로 대응했고, 다시 북한 경비정 7척이 충돌공격과 사격을 감행해 14분간 교전 끝에 북한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파손된 채 도주한 전쟁이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9시 45분 북한군이 NLL을 넘어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에 집중사격을 가해 윤영하 대위(정장)를 비롯해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등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낸 해전이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우리 정부와 기관들에 대한 디도스(DDoS) 및 GPS 교란 공격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불법 남침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정부, 군은 삼위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한다.

동시에 6·25전쟁 희생자, 연평해전 전사자와 부상자, 천안함 폭침 희생자와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한번 더 생각하며 6월을 경건하고 근검하게 지내야 하겠다.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지켜야 할 애국의 달이기 때문이다.

글·김형태(한남대학교 총장·교육학 박사)

국민과 함께하는 6월의 호국보훈 행사

바자회 수익금으로 영화 〈NLL 연평해전〉 제작 지원

국방부

제1연평해전 때의 우리 해군 참수리 325호의 모습. 교전이 벌어지기 직전 북한 경비정을 들이받은 후 최대동력으로 후진하고 있다.

6·25전쟁 63주년 행사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 유엔 참전용사, 시민,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영상물 상영, 뮤지컬 특별 공연을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게 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 퍼레이드’ 행사가 6월 29일 서울 전쟁기념관과 서울광장 사이에서 열린다. 군인, 경찰, 소방관, 청소년단체,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호국·보훈·감사를 주제로 퍼레이드와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된다.

정전협정 60년 기념 특별기획전 ‘아! 잊힐리야’가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전쟁기념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기획전은 참전용사와 국민, 민간단체가 함께 완성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유엔 참전용사들이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물품을 전시를 위해 제공했다. 당시 사용하던 전투복, 전쟁 당시 주고받은 편지·엽서, 당시의 기록을 모아놓은 사진첩 등 지금까지 국내에 공개된 적 없는 물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된다.

제2연평해전 기념 행사는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해군 참모총장 주최로 열리게 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참전용사,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반 국민의 참가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제2 연평해전 11주년을 맞아 제작 중인 영화 〈NLL 연평해전〉의 제작비 지원을 위해 해군장병 가족이 주관하는 바자가 6월 14일 서울 재경근무지원단을 시작으로 15일 계룡대, 17일 진해 해군의 집, 22일 부산 작전기지군항 부두에서 개최돼 추모 열기를 북돋웠다.

글·박경아 기자

문의·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2-2020-5409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참가신청 www.navy.mil.kr

제롬 파스키에 프랑스 대사–에릭 주앙 대령

"한국 구한 세계 젊은이들 헌신은 꼭 보존되어야 할 기억"

KTV가 6·25를 앞두고 〈정전 60주년, 참전국 대사에게 듣는다〉란 제목으로 연속 인터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6월 21일 첫 방영된 프랑스편에서는 프랑스 대사관의 제롬 파스키에 대사와 에릭 주앙 대령이 정전 이후 60년 동안 이뤄진 한국의 발전상과 양국 간 우호관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는 1950년 11월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크고 작은 전투에서 활약했으며, 사망 269명, 부상 1,008명 등 인적 손실을 입었다.

제롬 파스키에 대사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양국 젊은이들 간의 교류 증진입니다."

에릭 주앙 대령

"참전 당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던 용사들은 한국의 발전에 감격과 흥미를 동시에 느낍니다."

대사님께서는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제롬 파스키에 대사 "지난 12월 한국에 부임하면서 2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고, 전국을 여행하며 가는 곳마다 항상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더군요. 하지만 예전의 한국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여전히 저를 반겨주어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양국의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프랑스에 6·25전쟁 참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파스키에 대사 "3,5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머나먼 미지의 나라였던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단이 방한했을 때, 심지어 전쟁을 겪어본 적 없는 젊은이들을 포함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에릭 주앙 대령 "한국과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그들 곁에서 스러져간 전우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참전용사들은 감격과 함께 흥미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냉랭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랑스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파스키에 대사 "프랑스는 한반도의 변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북한의 호전적·공격적인 언행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항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왔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표명해왔습니다."

주앙 대령 "휴전 상황이 6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한국 군대가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써왔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의 18세, 20세, 23세의 젊은이들이 당시 보편적인 가치로 여겼던 자유와 정의, 평등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와서 참전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위한 희생과 세계 젊은이들의 용기 있는 헌신에 대한 기억으로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후에라도 보존되어야 할 기억입니다."

현재 양국은 어떤 면에 가장 중점을 두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파스키에 대사 "지난 20년 동안 양국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던 1990년대만 해도 한국에 체류하는 프랑스인은 400~500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천~3천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양국의 미래 협력 관계에서는 특히 대학 차원의 협력과 학생 교류가 무척 중요하며,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젊은이들 간의 교류 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나 1년 이상 다른 나라에 체류한 기억은 평생 동안, 사회 활동을 하는 내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양국 문화 교류에 변화가 생겼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스키에 대사 "프랑스의 많은 젊은이가 한국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K팝이나 '강남스타일'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영화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 부문뿐만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융성'을 새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모범 선례로 프랑스가 꼽히는데요.

파스키에 대사 "우리는 문화 부문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교류하면서도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란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매년 초여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악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고, 음악 안에서 소통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흥미로운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영감을 얻어서 무엇인가 시도할 계획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문화융성'을 위해 양국이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파스키에 대사 "양국은 문화 부문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선교사들이 19세기 초 한국에 처음 왔고, 1886년 외교관계가 수립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는 수교 130주년인 2016년을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프랑스에서는 '한국 문화의 해'를 기념하는 행사가, 한국에서는 '프랑스 문화의 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파스키에 대사 "이방인인 우리 모두는 60년 전 한국이 어느 정도로 파괴됐고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고 교육 수준을 높인 민족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도 짊어지겠지만, 저는 한국의 역동성과 에너지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전히 빛나는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양국 관계의 증진과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고, 양국민의 이익을 위해 함께할 수 있다면 더없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Gamsahamnida)" G

정리·박경아 기자

방송다시보기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6월 29일 개막해 8일간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 볼 수 있는 경기 종목인 크라쉬, 당구, e스포츠, 체스, 그리고 실내카바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 속 당구 선수는 이번 대회 홍보대사인 차유람 선수다.

사진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하나된 아시아… 스포츠와 문화의 축제

6월 29일 개막식 갖고 7월 6일까지 8일간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시와 안산·안양시 일원에서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이기도 합니다만, 내년에 열릴 인천아시안게임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실내아시안게임'과 '무도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별도로 개최해왔던 대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두 대회가 합쳐지면서 재미와 나눔의 즐거움이 넘치는 새로운 유형의 이벤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번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인 인천이 함께 개최하지만, 차기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시, 차기 아시안게임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인천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출발점이 된 셈이지요.

이런 의미에 걸맞게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새로운 아시아시대에 발맞춰 아시아만의 특성을 지닌, 그래서 하나 된 아시아가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익숙한 재미, 혹은 낯선 즐거움이 함께 있는 대회입니다. 볼링과 바둑, 당구와 같이 일상에서 친숙한 게임도 있습니다. 멘털스포츠인 e스포츠, 바둑, 체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었던 카바디, 크라쉬, 무에이 같은 낯설지만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종목까지 함께 어우러져 쏠쏠한 관전의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홍보대사인 '당구여신' 차유람 선수의 경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개요

일시 6월 29일~7월 6일(풋살만 26일 경기 시작)
장소 개·폐회식이 열리는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등 인천·안양·안산 일대 9개 경기장
종목 당구, 볼링, 체스·바둑&e스포츠, 댄스스포츠, 풋살, 실내카바디, 킥복싱&무에이, 크라쉬, 25미터 쇼트코스수영의 9개 이벤트(12개 종목)
참가국 및 참가 인원 43개국 선수 1,700여 명 등 총4,000여 명

임권택 총감독·장진 총연출로 화려한 개·폐회식 준비

이와 함께 대회기간 내내 인천 시내 곳곳에서 다양하면서도 풍성한 문화행사가 함께 열려 한국적인 멋과 맛을 한껏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개·폐회식입니다.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 등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6월 29일 오후 6시 40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꿈꾸는 이를 비추는 빛'이 주제랍니다. 보통의 인천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40억 아시아인들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문화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됩니다.

개회식 무대는 정보기술(IT) 강국답게 행사장 3개 면에 약 130미터 길이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됩니다. 부평구 주민 '인천사람들'이 신명나게 풍물공연을 하고, '소래포구 사람들'이 합창을 들려줍니다.

7월 6일 오후 6시40분 개막식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폐회식의 주제는 '우리의 빛이 모여 아시아를 비추다'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축제 참가자 모두이지요.

가장 큰 감동은 '특별한 시간, 8일'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대표가 되어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하는 외국 선수의 대회 참가 전 모습부터 끝날 때까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국민배우 안성기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감동으로 인도합니다.

이번 대회를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IT가 결합한, 세대구분 없이 함께 즐기는 대회로 준비해온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인천시, 그리고 290만 인천 시민과 더불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땀 흘린 선수부터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까지,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의 축제, 8일간의 잠 못 이루는 스포츠와 문화의 여정, 신명나는 아시아 축제의 한마당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 · 박경아 기자

김영수 조직위원장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을 배려하는 대회 될 것"

"이번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테스트베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가늠자인 셈입니다."

김영수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성공적인 대회운영 경험을 쌓는 것과 더불어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나아가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의 스포츠 약소국을 배려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준비에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문화, IT와 같은 우리의 강점을 드러내면서도 45개 아시아 국가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배려와 화합이 있는 대회, IT와 친환경 대회,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모델이 되는 대회, 이러한 3대 지표를 목표로 삼아 준비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경제적 모델이 되고자 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그동안 중국 광저우나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은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된 '비싼 대회'였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아시안게임 개최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때로는 경제적 이유로 이미 유치한 아시안게임을 반납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1968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가 반납했고, 1986년에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로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우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대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기가 열리는데, 관람 포인트를 말씀해주신다면.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경기 종목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당구, 볼링과 같이 생활체육에 근접한 종목도 있고, e스포츠같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또 실내카바디, 크라쉬, 무에이와 같이 이국적이고 낯선 경기도 있습니다. 어느 게임이든 내가 좋아하는 재미, 남들이 즐기는 재미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관람객들이 어떻게 재미를 찾으면 좋을까요.

"하루 일정으로 인천을 찾아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게임, 궁금한 게임, 이렇게 두 경기쯤 관람하고 인천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맛 여행을 할 수 있지요. 소래포구의 게, 차이나타운의 자장면, 신포시장의 막걸리도 즐기고, 저녁 7시쯤이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문화단체들이 펼치는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쯤 오셔서 두어 경기 즐겁게 보면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한때 그랬지만, 어려운 국가일수록 메달의 가치가 큽니다. 이번 대회 경기 종목들이 올림픽 경기 종목은 아니지만, 메달을 따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선수가 경기에 나가지 않아도,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도 국가대표 대회 성공을 빕니다"

선수들·단기고용요원·SNS 서포터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구슬땀

incheon 2·0·1·3

풋살 골키퍼 허명범 선수
"풋살과 대한민국의 영광 위해 8강에 올라야죠"

추적추적 내리는 장맛비 속에서도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에 위치한 송도글로벌캠퍼스는 글로벌한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6월 26일부터 이곳 실내경기장에서는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남녀 풋살 경기가 열리게 된다.

장맛비가 종일 내리던 6월 18일, 실내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니 열기로 후끈하다. 선수들의 고함 소리, 물씬 풍기는 땀 냄새. 이들은 훈련 중인 풋살 남자 대표선수들이다.

풋살 경기장은 핸드볼 경기장과 비슷하다. 크기는 축구경기장의 4분의 1정도. 하지만 발로 하는 핸드볼답게 빠른 속도감과 날카로운 슈팅은 눈으로 공을 따라잡기에도 숨 가쁘다. 훈련 중인 선수는 20명. 주장을 맡은 이는 골키퍼인 허명범(28·서울FS) 선수다.

풋살은 5명이 경기를 뛰는데, 근거리 축구경기다 보니 골키퍼 부담이 크다.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던 대한축구협회 산하 한국풋살연맹의 김인한 사무국장은 "골키퍼의 역할이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전·후반 각각 20분의 경기를 마친 허명범 선수는 땀범벅이었다. 선수로서 느끼는 풋살의 매력에 대해 물었다.

"풋살은 실내에서 하는 미니축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빠른 공수 전환. 그러다 보니 축구보다 골도 더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서 날아오는 공이 두렵지 않을까. "저는 골을 막는 것에 희열을 느껴요"라며 씩 웃었다.

허명범 선수는 전국에 있는 9개 풋살(FK) 리그팀 중 하나인 FS서울 소속이다. 풋살 동호인들이 늘면서 2009년 FK리그가 시작됐으나, 프로팀이 없다 보니 리그팀 선수들 대부분 생활체육 지도자를 하면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4년 전 풋살에 입문한 그는 이번에 처음 국내에서 풋살 국제경기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국내 첫 국제대회인 만큼 한국이 8강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인기종목이라기보다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풋살, 8강 진출이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풋살 아시아 랭킹 16위다. 하지만 허명범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풋살,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뛰고 또 뛸 각오다.

메인등록센터 윤중민·서지연씨
"단기 고용요원이지만 인천시민으로서 영광이죠"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미추홀타워 1층에 위치한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메인등록센터는 대회 개막 전이지만 벌써 바쁘다. 대회 참가자 4천명의 ID카드신청을 접수·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단기 고용요원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윤중민(25·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씨는 취업준비생이다. 서울 G20정상회의, 녹색기후기금(GCF) 총회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여러 국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뿌듯한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마치 열심히 준비한 연극이 끝난 뒤 허무감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윤씨는 내년에 취업을 해야 하기에 더 이상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번 대회에 더 애정이 간다고 했다.

윤씨와 함께 일하는 서지연(21·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씨는 영어 통·번역을 전공하는 대학 휴학생이다. "인천을 알리는 기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 영광스럽고 자부심도 느껴요."

이들은 대회가 끝난 뒤 7월 9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젊은이와 인천시민을 대표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땀을 흘릴 것이다.

SNS 서포터스
"가능한 한 많은 경기 보고 아시아 각국에 전할게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SNS 홍보에 한몫을 하는 사람들이 SNS 서포터스 20여 명이다. 이들은 대회 준비 과정과 관련 소식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SNS 채널로 전파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성공개최기원 행사에도 이들은 어김없이 참석해 자신들이 가진 장비로 행사 곳곳을 기록했다. 6월 19일에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야구선수들과 릴레이 홍보를 했다.

서포터스 중 한 명인 김병민(21·대학 3학년)씨는 충북 진천에서 인천까지 오가며 SNS 홍보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힘들지 않아요.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요. 모든 종목의 경기가 궁금하고 기대돼요. 가능하면 많은 종목의 경기들을 보고, 전하려고 해요."

서포터스 가운데 가장 '어른' 축에 속하는 문경숙(51·인천 남동구 구월동)씨는 "관심이 중요하다 싶어 서포터스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민이거나 아니거나, SNS 서포터스의 활동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장애인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
'1천만원 상금' 국민참여 프로그램 공모합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시민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지역 122개 단체와 조직은 '범시민지원협의회'를 결성, 1천만원의 상금을 걸고 6월 20일부터 50일간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국민참여 프로그램 공모 분야는 ▶홍보 ▶아시아 친선 ▶남북교류 ▶자원봉사 ▶스포츠 ▶학술·문화 ▶지역경제·개발 ▶교통·환경 ▶음식·숙박 ▶장애인 등 10개 분야다.

인천광역시청 및 군·구,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있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광역시새마을회 ☎ 032-433-4054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

인천에 가면… 경기·관광·식도락 1석3조

입장권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입장권을 구입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고 지역 내 박물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족 등에게 입장권 가격의 50퍼센트를 할인해주고 있다. 또 경기장마다 30인 이상 단체관람객에게는 할인율이 적용된다. 입장권을 구입하면 유명 관광지를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무료입장이 가능한 곳은 인천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검단 선사박물관, 이민사박물관 등 인천시 직영시설들이다. 민간운영시설 중에는 월미테마파크, 현대유람선, 인스파월드 등의 할인 입장이 가능하다. 가장 반가운 소식! 당구, 체스, 바둑, 25미터 쇼트코스수영, 볼링, 풋살(동부학생체육관) 등 6개 종목은 무료관람이다.

국립창극단

국립창극단의 판소리 오페라 '수궁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차이나타운의 밴댕이회거리.

지하철과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대회가 열리는 동안 지하철과 버스운행이 늘어난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을 경유하는 지하철 7호선이 증편되며, 1200·9300·9800·79·87번 등 11개 노선버스도 증차해 운영한다.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들은 모두 지하철로 접근이 가능하다. 개·폐회식과 e스포츠와 댄스스포츠경기가 열리는 인천삼산월드체육관(7호선)을 비롯해 송도컨벤시아(당구·인천지하철 1호선), 안양호계체육관(볼링·4호선), 연세대국제캠퍼스(체스)·송도글로벌캠퍼스(풋살·이상 인천지하철 1호선), 동부학생체육관(풋살·인천지하철 1호선), 도원체육관(킥복싱)·도원수영장(쇼트코스수영·이상 1호선), 안산상록수체육관(실내카바디,크라쉬·4호선) 등 모두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갈 수 있다.

대회기간 중 차를 갖고 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부천영상단지 내 공영주차장 2곳에 이번 대회를 위한 임시주차장이 마련된다. 주차 면적은 869개면, 대회기간 중 하루 이용료는 1천원이다.

인천광역시청 종합안내 032-120

문화로 즐기는 인천의 Night Life!

대회 기간 동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등에서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펼쳐진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개막식 다음 날부터 5차례의 예술공연이 펼쳐진다. ▶6월 30일 국립무용단의 '코리아판타지' ▶7월 1일 국립국악원의 관현악 창작국악 ▶7월 2일 국립합창단·인천시립합창단·인천시립교향악단의 협연 '카르미나 부라나' ▶7월 5일 국립발레단의 '차이코프스키-삶과 죽음의 흔적' ▶7월 7일 국립창극단의 판소리오페라 '수궁가'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진다.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이 운영된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7월 4일과 5일 이틀간 저녁 8시부터 '찾아가는 영화관'이 진행된다. 이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은 전석이 일반 1만원, 청소년 8천원으로 엔티켓,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찾아가는 박물관과 영화관 행사는 무료다.

엔티켓 ☎ 032-818-5665, 인천광역시청 종합안내 032-120

입장권 가격
개·폐회식 1등석 : 20만 원
2등석 : 10만 원
3등석 : 5만 원
일반 경기 : 5천~3만 원

판매처
OK티켓 www.okticket.com
콜센터 ☎ 1599-4290,
경기 당일 각 경기장 현장 판매소

무료 경기
당구, 볼링, 체스, 바둑, 풋살,
25m쇼트코스수영

문의
인천광역시청 종합안내 032-120,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032-458-2014

식도락과 시티투어

오랫동안 해상교역 도시였던 인천은 남다른 역사를 가진 만큼 이야기를 품은 음식들이 많다. '세숫대야 냉면'의 원조는 인천 화평동이고, '국민음식' 짜장면은 개항기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다. 북성동 차이나타운의 짜장면거리에는 중국음식점 20여 개가 자리한다. 짜장면집의 시초인 '공화춘'을 박물관으로 꾸민 '짜장면박물관'도 있다.

매콤하고 바삭한 신포국제시장의 닭강정, 손님접대용으로 안성맞춤인 송도꽃게거리의 꽃게요리, 술안주로 사랑받던 연안부두의 밴댕이, 피난민이 즐기던 송현동 순대까지 사연이 듬뿍 담긴 음식들이 풍성하다.

인천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명소를 돌아보는 것도 효율적이다.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 인천대교 등을 돌아오는 시내순환코스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화~일요일). 좀 더 여유가 있다면 5시간 동안 명소들을 돌아보는 시내 테마코스(화~일요일), 전등사 구경까지 할 수 있는 강화코스(토·일요일, 7시간 소요)를 즐길 수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인천시티투어 ☎ 032-772-4000
인천광역시청 종합안내 032-120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종합경기일정

경기 개최일 / 안에 숫자는 금메달 수

경기일자	6/29	30	7/1	2	3	4	5	6	금메달 수	경기장
개회식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당구			2	3		2	1	2	10	송도컨벤시아
볼링		1	1	1	1			2	6	안양호계체육관
체스					2		1	1	4	연세대 국제캠퍼스
바둑				2			2		4	연세대 국제캠퍼스
e 스포츠			3	3					6	인천삼산월드체육관
풋살						5	5		1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댄스 스포츠							1	1	2	송도글로벌캠퍼스, 동부학생체육관
실내 카바디					2				2	안산상록수체육관
킥복싱							2	7	9	도원체육관
무에이				9					9	도원체육관
크리쉬						3	3	2	8	안산상록수체육관
25m 쇼트코스수영		8	7	8	7				30	도원수영장
폐회식										인천삼산월드체육관

꼼꼼한 여름철 재난 대비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킵니다

여름입니다. 올해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재난과 위험도 대비만 잘 한다면 상당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일러스트 · 이철원

“국민안전 최우선” 부처협업으로 재난 대비하라!

재난 예·경보시설 추가 설치… 24시간 상시가동상태 유지

중앙포토

장마철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집중호우 대비 훈련이 6월 13일 서울 양재동 주택가에서 열렸다. 서초구청 재난치수과 직원들이 침수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다.

올여름 기상상황이 불안하다. 예년에 비해 장마가 일찍 시작하고 오랫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장마는 전조일 뿐이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섭씨 23~26도)보다 높고 강수량도 평년(501~940밀리미터)보다 많을 거라고 예상한다.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2~3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이 상승해 연안지역 침수와 하천 하류지역 홍수위가 상승할 수도 있다.

자연현상에 따른 각종 재난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비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극한 기상 대비 국민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난해보다 181개소 확대한 2,768개소로 지정·관리하고, 전담 관리자 4,400여 명을 투입해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한다. 또 수도권 반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인 방수판과 자동펌프를 확대 설치한다. 전국 지하철역사 128개역 출입구에는 빗물 유입 방지시설을 5,300여 개 설치·운영한다. 집중호우로 침수가 예상되는 339개 도로에 대한 긴급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피해에 대비해 광역긴급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철과 심야버스도 30~60분 연장운행할 예정이다.

방재물자 1.2배, 재해구호물자 2배 이상 확보

소방방재청은 효율적인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4시간 3교대 상황근무와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을 활용해 강우 집중지역을 3시간 전에 알려주고 하천범람과 도시침수 우려지역도 사전에 예측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예·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상시가동상태도 유지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재난문자서비스(CBS), DMB,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국민이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풍수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방재물자를 전년 대비 120퍼센트 늘리고 재해구호물자도 비축기준 대비 200퍼센트 이상 확보했다. 지역 군부대와 장비 등에 대한 물자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건설기계협회 등 민간단체의 장비 22만여 대와 긴급구호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헬기도 364대 확보해둔 상태다.

재난을 입은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예산도 일반예산 200억원으로 마련돼 있다. 지원절차는 간소해졌다. 주민이 피해신고를 관할 읍면동에 접수하면 바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종전 30일에서 7일로 대폭 줄었다.

피해주민이 세제·융자, 전기·통신료 감면 등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로 처리, 가급적 빨리 생활안정을 찾도록 했다. 또한 주택피해 풍수해보험 지급액도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해 최초 120만원과 기준 면적(50평방미터) 초과 시 규모별로 비례해 지급키로 했다.

올 여름철 풍수해대비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계기관 등 모두가 협업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도 ‘협력’이다. 국민행복형 4대 융합 신산업 중 하나도 재난대비 시스템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난·재해 감시 인명구조 로봇을 개발하고 안전행정부와 국방부가 이를 안전과 국방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별로 지난해 재해복구사업과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협업이 가능한 기능별 상황관리 운영에도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을 모아 여름철 풍수해 대책 및 지자체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각 부처는 이 자리에서 국내 재난 발생상황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내놓고 협력을 다짐했다. G

글·박상주 기자

정부 각 부처 재난 대책

부처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시·군별 지역담당관	●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상시 운영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환경부–산림청	●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중점 점검 실시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입산통제 사전 홍보 ● 탐방객·야영객에게 실시간으로 재난위험 통보
국토교통부	● 다목적댐과 보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조절 용량 확보 ● 하천 수해복구사업 조속히 완료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물, 선박에 대한 안전검검 강화 ● 태풍 내습시 항만운영 및 해운물류 안전대책 마련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피해 보상 확대·절차 간소화

1회 신고로 7가지 정부지원 신청 끝

이전	현행
공공기관·통신사 대리점·세무서 등 지원 부문별 기관 방문	● 재난피해 신고 1회로 세제·융자, 전기·통신료 감면 등 7가지 정부지원 신청 완료 ● 부처 간 피해조사 결과 공유 구비서류·피해사실 확인조사 간소화

풍수해 보험금 확대

이전	현행
동산침수 피해 120만원	● 최소 120만원 + 기준면적(50㎡) 초과 규모별로 비례지급 ● 온실보상금 최대 49.5% 인상

풍수해

태풍 오면 강풍·폭우 함께 대비를…

중앙포토

지난해 8월 29일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상륙하자 정부는 강풍으로 차량이 넘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인천대교 송도 진입로를 통제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기상관측이 개시된 이래 107년 동안(1904~2010년) 한국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수는 모두 327개다. 우리나라에는 평균 한 해 3.1개의 태풍이 찾아와 영향을 미친다. 8월, 7월, 9월 순으로 태풍이 잦다. 태풍은 강풍이나 폭우 등에 따른 직접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끼치는 공포의 대상이다. 간접적인 피해도 막심하다. 항공기와 선박이 수일간 운항할 수 없어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 1년 농사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어촌에서는 선박이 파손되거나 양식장이 파괴돼 생업기반에 타격을 준다.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2009년 통계까지 태풍에 의한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인명피해는 6,005명에 이른다. 연평균 사망·실종자 수가 57명에 이를 정도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1,232명)를 낸 태풍은 1936년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한반도를 휩쓴 '3693호' 태풍이다. 재산피해액이 가장 컸던 태풍은 2002년 8월 30일 시작된 태풍 '루사(RUSA)'였다.

태풍은 강풍과 함께 폭우를 동반한다. 실제 태풍에 따른 인명사고는 호우가 직접적인 이유일 때가 많다. '루사' 때 강릉에는 하루 강수량 870.5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졌다. 호우로 인한 이재민이 8만8천여 명에 이르렀고 사망·실종자는 246명에 달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풍해와 수해를 풍수해라고 붙여 부른다.

삽시간에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비뿐이다. 아직 태풍을 약하게 만들거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태풍이 어느 방향에서 언제쯤 올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G

글·박상주 기자

태풍 대비요령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둔다.
- 하천 근처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다.
- 지붕, 간판, 창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기구, 자전거 등을 단단히 고정한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다.
- 고층 아파트 주민은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인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린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지 않는다.
- 산간 계곡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 시설물을 점검해 응급 대처한다.
- 해안지역 저지대·상습 침수지역 거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어업 활동은 하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둔다.
- 어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해수욕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막는다.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 주변에 있으면 미리 제거한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한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는다.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고 가족 간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한다.
- 농촌지역에서는 모래주머니 등으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한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둔다.
-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마신다.
-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보수·복구 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둔다.

폭우(산사태) 대비요령

-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물이 집 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홍수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한다.
-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무릎 위로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 다니거나 운전하지 않는다.
-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은 삼간다.
- 연못, 구덩이 등에 관한 안전표지판을 잘 살펴본다.
- 우물은 오염될 수 있으니 마실 물을 미리 준비한다.
- 해안가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는다.
- 집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운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 물이 밀려들 때는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한다.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집 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한다.
-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 홍수로 밀려온 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한다.
- 물이 빠진 후에는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물에서 멀리 떨어진다.
-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 무너질 수 있으니 재난발생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는다.
- 집에 도착하면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한다.

풍수해 피해 신고처 : 각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한반도 기상정보의 최전방엔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있다

천리안위성 덕에 일본 의존 벗고 독립… 이젠 세계와 당당히 정보 공유

'기상청에서 맑다고 예보하면 우산을 챙겨라'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천리안위성이 등장하면서 기상예보가 확 달라졌다. 오전에 비가 올지, 오후에 비가 올지 맞춰내는 수준을 넘어 몇 시에 어느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올지 바람이 얼마나 불지까지 정확히 맞힌다. 무엇 때문에 달라졌을까.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꼽는다.

첫째, 과거 일본이 만든 기상예측모델을 버리고 세계 정상급인 영국 기상예측모델인 'UM모델'을 한국에 적합하게 맞춰 쓰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천리안위성으로 한반도 구름 사진을 시간당 8장씩 찍는다. 우리 위성이 없었을 때는 시간당 2장밖에 못 찍는 일본의 위성사진으로 구름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했다. 정지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듯 구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 구름 이동경로 예측이 더욱 정확해진 것이다. 셋째, 기상청에 슈퍼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각종 기상정보에 대한 계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예보관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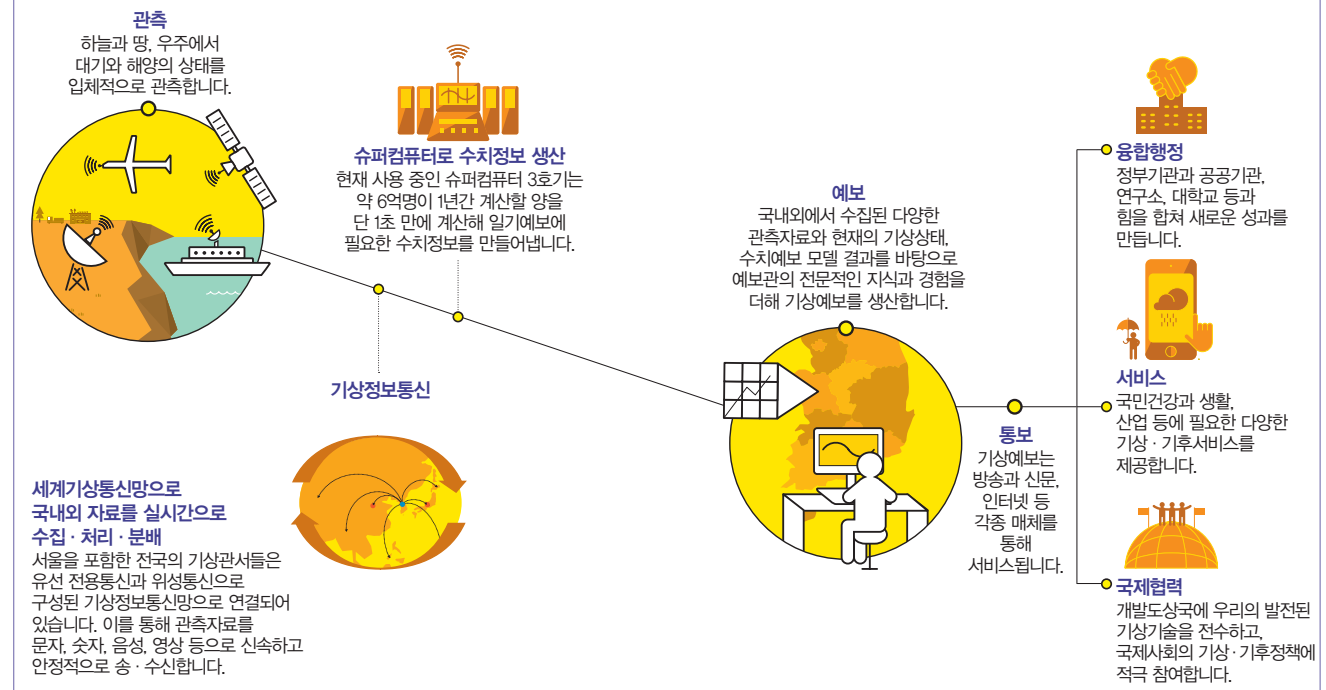
천리안위성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 개국에 위성사진을 서비스한다. 지구를 3시간마다 촬영하며 전체 지구를 모두 촬영하는 데 약 30분이 소요된다. 한반도가 포함된 동북아시아 지역은 통상 15분마다 촬영한다. 기상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에 의존하던 기상정보의 독립선언'이라고 부른다. 센터 위성분석과 홍성욱 연구관은 "기상위성 사진을 얻으러 다니던 나라에서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나라로 발돋움했다"며 "국제 기상학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섰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상 예측 위상이 올라간 데는 국가기상위성센터 노력이 크다. 센터는 천리안위성을 제어하고 정보를 수신할 뿐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기상위성 정보를 수신해 기상청에 전달한다.

외국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MTSAT-2(일본), FY-2D(중국)와 극궤도 기상위성인 NOAA-15·18·19호, NPP, Terra, Aqua, MetOp 위성자료도 센터로 모인다. 지상망(FTP)을 이용해 CORIOLIS(Windsat 센서), DMSP 등의 차세대 극궤도 기상위성 자료도 받는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전 세계 기상위성이 찍은 태풍 등 구름 사진을 한데 모아 태풍의 방향과 강도를 분석한다. 센터 분석관이 태풍을 찍은 사진을 분석 중이다.

각종 위성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는 운정온도·운정고도(구름 맨 꼭대기의 온도와 위치), 운량 등과 같은 정량적인 구름 정보와 해수면 온도, 황사영역, 안개, 구름이동벡터 등이 포함된다. 위성이 태풍을 촬영해서 기상청에 전달되는 데까지 35분 정도 소요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신속한 편이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사실상 실시간 태풍 사진을 보는 셈이다.

35분이란 소요시간을 세부적으로 보면 천리안위성이 한반도를 촬영하는 데 약 1분이 걸린다. 이 위성사진은 일반 사진 파일과 다른 암호화된 디지털 신호다. 수신에 15분이 걸린다.

위성은 움직이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위성사진은 원이 아닌 타원처럼 촬영된다. 이를 보정하고 구름의 모양을 실제와 맞게 조정한다. 또 흑백인 위성사진을 파란색 바다와 녹색 임야 등으로 채색한다. 이런 영상 처리에 12분 정도 소요된다. 태풍 중심의 위치와 강도, 강풍 반경 등을 분석하는 데 10여 분. 35분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출처·기상청 홍보책자 인포그래픽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기상청 분석팀으로 전달된다. 기상청은 지상에서 관측된 풍량 및 온도·기압 등의 기상정보와 종합해 태풍의 경로와 강도 등을 예측한다. 통상 국민들이 TV로 보는 기상예보까지는 1시간이 걸린다. 태풍이 다가와 비상상황에 들어가면 위성사진 전달 시간은 더욱 짧아진다.

향후 한국의 기상예보는 더 정확해질 전망이다. 2017년 천리안위성이 수명을 다한다. 이에 맞춰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기상전용위성(GEO-KOMPSAT-2A)을 발사하고 이듬해 환경-해양 위성(GEO-KOMPSAT-2B)도 쏘아 올린다. 이들 위성은 한반도 상공을 지구의 자전 방향에 맞춰 돌기 때문에 늘 우리의 머리 위에서 구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천리안위성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위성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기상과 관련한 수치예보 지원, 재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궤도 위성도 발사된다. 이 위성은 태풍뿐 아니라 홍수, 지진, 산불 등 각종 재난상황을 소상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다.

올해 센터는 태풍방재를 위해 위성태풍전담반을 구성했다. 태풍예보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웹기반 태풍분석시스템에 천리안 기상위성 기본영상과 마이크로파 자료(극초단파를 이용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까지 촬영한 영상)를 중첩·분석하고 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분석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대류에 의해 생기는 구름인 대류운 등 위험기상도 조기에 탐지하고 있다. 기상예보의 수준이 한층 향상되고 있다. G

글·박상주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폭염

"어르신들, 더위 참지 말고 오세요"

전국 3만9,789곳 '무더위 쉼터'에서 24시간 냉방·건강검진 지원

전민규 기자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연서경로당에 지역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모였다. 연서경로당을 비롯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장소는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갈 수 있도록 냉방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연서경로당.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개방되는 '무더위 쉼터'다. 경로당은 평소에도 마을 주민과 노인들이 자주 찾을 만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다.

본격적인 장마 시작이 예고됐던 6월 18일, 비가 오기 직전 특유의 끈적끈적한 날씨 속에서도 30여 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였다.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주민 김은옥(67)씨는 "아이고 좋은 일이지요"라며 반색을 했다. 김씨는 "집 근처에 24시간 무더위 쉼터가 생겨 좋다"며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연서경로당은 그동안 노인들의 휴식처이자 더위 피신처로 이용돼 왔던 곳이다. 경로당 한쪽에 설치된 에어컨과 선풍기, 부채로 그간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왔다. 이번 무더위 쉼터 지정 취지는 정부가 에어컨 사용료를 지원하고 24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지원을 늘리는 데 있다. 주민 이종문(75)씨는 "평소 경로당을 자주 찾는데 곧 다가올 폭염에 많은 사람이 이곳을 쉼터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연서경로당처럼 누구든 들어가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는 전국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주민센터·아동센터·수련관 등을 대상으로 3만9,789개소가 지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폭염에 대비한 노인 등 취약계층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본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시설에 냉방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도우미도 활동한다. 어르신 돌봄이, 재가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전국에 6만8천여 명이 투입된다.

폭염특보 발령 지역을 대상으로는 119 구급대가 폭염구급차에 생리식염수·얼음조끼·얼음팩 등 폭염 대응 구급장비를 탑재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실외작업장은 오후 2~5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여름철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폭염 취약 대상으로 꼽힌다. 건설현장과 같이 체력을 많이 요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에겐 폭염이 산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제철과 주물업, 유리가공업과 같이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과 조선, 건설 등 실외사업장의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냉방과 통풍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이 작업 중 15~2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시원한 물과 식염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같은 실외사업장에선 오후 2~5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 G

글·김슬기 기자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유 형	발생원인	주요증상 및 소견	응급조치
열경련	●과도한 염분손실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	●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 등) ※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 ●체온은 정상(36.5℃)	● 0.1% 식염수 공급 ● 경련발생 근육 마사지
열탈진	●고온작업시 체내수분 및 염분손실 ●고온작업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이 발생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구역, 구토, 근육경련, 실신 등 ●체온 38℃ 이상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 ●0.1% 식염수 공급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열사병	●체온조절 장해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	●현기증, 오심, 구토,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 ●체온 40℃ 이상	●환자의 옷을 시원한물로 흠뻑 적심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줌 ●의식에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
열허탈증(열피로)	●고열환경 폭로로 인한 혈관장해(저혈압, 뇌 산소 부족)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 ●물과 염분 섭취
열발진(땀띠)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되는 땀샘의 염증	●홍반성 피부 ●붉은 구진 발생 ●수포, 홍륜 발생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 ●피부를 청결히 함

자료·고용노동부

폭염예방 9대 건강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합니다.
6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8 주·정차된 차량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합니다.

자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다리부터 천천히 물속에… 중간엔 꼭 휴식을

해파리에 쏘였을 땐 바닷물에 10분 이상 세척을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여름휴가철이면 전국 해수욕장이나 계곡은 피서 인파로 북적인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불볕 더위를 잠시나마 잊기 위한 사람들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서객들의 움직임은 바빠질 듯하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에 피서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더위를 식혀준다고 조심성 없이 무턱대고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곤란하다. 순간의 부주의로 몸을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 산간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58명으로,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이 음주수영, 안전장비 미착용 등과 같은 안전수칙 불이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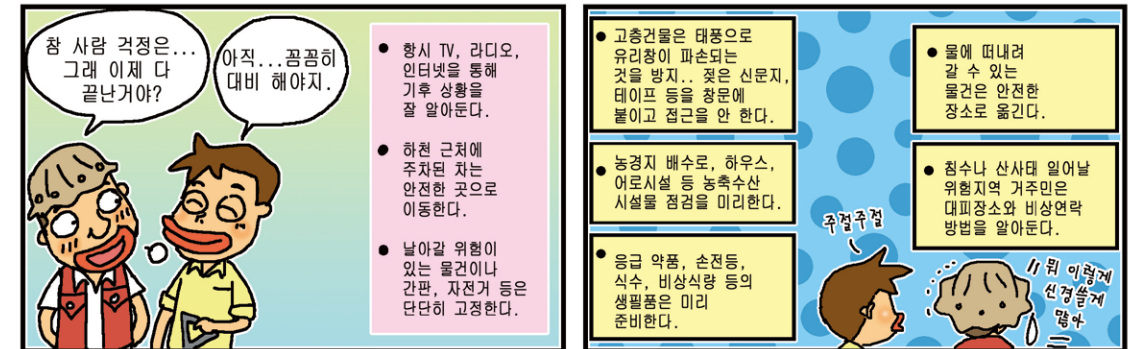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려면 피서객들은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놀이를 즐기기 알맞은 수온은 섭씨 25~26도다. 물에 들어갈 때는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찬 기운이 몸을 순환시키도록 하는 게 좋다.

파도가 있는 곳에서는 머리를 수면 위로 내밀고 있어야 한다. 물을 먹지 않으려고 숨을 참기보다는 마시는 편이 오히려 낫다.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더 안전하다.

물에서 평영 50미터는 육상에서 250미터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감을 주므로 수영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는 것은 삼간다. 자칫하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위험이 크다.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으니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물 모양의 튜브나 보행기 등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는 뒤집힐 경우 아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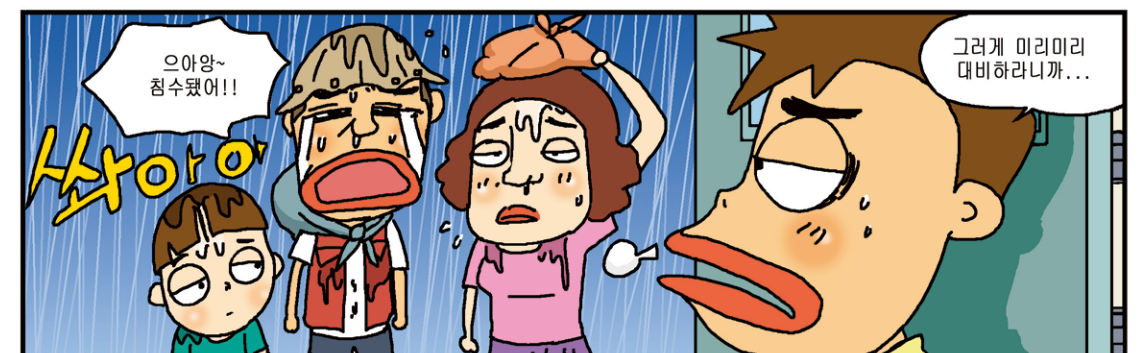
글·백승아 기자

물놀이 안전사고 신고번호 119 또는 122(해양긴급신고번호)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2.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 물을 묻힌 후 들어간다.
3.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길 때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4.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위험지대니 유의한다.
5.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6. 수영 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7. 장시간 수영하거나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는 것은 피한다.
8.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9.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
10. 구조 시에는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다.

피서철 불청객 해파리 피해 최소화하는 법

- 부유물과 거품이 많고, 물의 흐름이 느린 곳에서는 가급적 해수욕을 피한다.
-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즉시 환자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 부위를 바닷물을 이용해 10분 이상 세척한다(맹독성 해파리에 쏘인 경우는 식초를 사용해 세척한다).
- 피부에 박힌 독침은 플라스틱 카드나 조개껍데기로 독침이 박힌 반대방향으로 긁어낸다.
- 해파리에 쏘인 부위에 뜨거운 모래찜질 등을 하면 해파리 독이 퍼질 수 있으니 삼간다.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호우·태풍이 오기 전에는

손만 잘 씻어도 세균 전염 예방

과도한 습기는 최대 적… 옷장에는 신문지, 주방·욕실엔 말린 녹찻잎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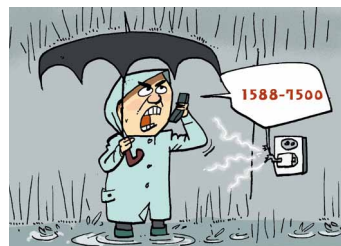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올여름 장마는 강우량이 예년보다 많고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신경 쓸 부분이 많다. 건강 관리가 가장 먼저다. 장마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함께 높아져 수인성 감염병과 모기 매개 감염병, 피부병 등이 유행한다. 땀이 많이 나 바이러스와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예방법은 손 씻기다. 수족구병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 대부분은 손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장마철에 유행하는 아폴로 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손 씻기는 필수다.

건강관리는 이렇게

- 수인성 전염병·유행성 눈병 예방하려면 손 씻기가 기본 중의 기본.
-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
- 음식물 보관 기간은 짧게, 손에 상처가 있을 땐 조리 금물.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집 주변 고인 물 빼고, 저녁부터 새벽 사이 외출은 자제.
- 발열,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붓는 등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진료받아야.

장마로부터 내 집을 보호하자

- 발코니 등 외벽 방수 처리는 기본.
- 축대와 담장도 사전 점검, 작은 균열이라도 반드시 보수.
- 낙엽 등 퇴적물 때문에 물이 차거나 역류할 수 있으므로 배수구 주변 자주 청소.

전기 안전도 필수

- 전기 차단기, 누전 차단기 작동 상태 미리 점검.
- 집 주변 전깃줄 피복이 벗겨졌다면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
- 폭우 시엔 전기 차단기 내려두고, 침수 시엔 접근하지 말 것.
- 침수 지역 지나갈 땐, 맨홀 뚜껑 밟지 않고, 신호등 주변도 피할 것.
- 낙뢰가 있다면 컴퓨터나 TV 플러그 미리 뽑아두기.

음식은 꼭 익혀 먹어야 한다. 습도가 높아 음식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이다. 조리한 음식이라도 가급적 냉장고에 보관하고, 생선회와 육회 등 날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장마철엔 습한 날씨로 에어컨 사용량도 는다. 냉방병이나 여름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얇은 카디건이나 남방셔츠 등으로 체온을 잘 유지해야 한다.

장마 사이에 맑은 날이 있을 때는 옷과 이불 등을 잘 말려 습기를 제거해준다. 환기를 자주 하고 가끔 보일러를 틀어주면 집 안 곳곳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숯이나 습기제거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숯의 미세한 기공은 공기 중 습기를 잘 빨아들인다.

옷을 보관할 때에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옷과 옷 사이에도 신문지를 한 장씩 끼워두면 된다. 습기에 약한 폴리에스테르 재질은 가급적 위쪽에 수납해야 습기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문지는 신발 속 습기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주방이나 욕실에서는 말린 녹찻잎을 활용하면 좋다. 녹찻잎이나 식초를 배수구에 뿌린 뒤 뜨거운 물로 닦으면 효과가 있다. 욕실에선 칫솔에 에탄올을 묻혀 바닥을 닦으면 곰팡이가 잘 피지 않는다.

목욕을 한 후엔 반드시 바닥과 천장의 남은 물기를 제거해줘야 한다. TV 등 가전제품과 벽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면 습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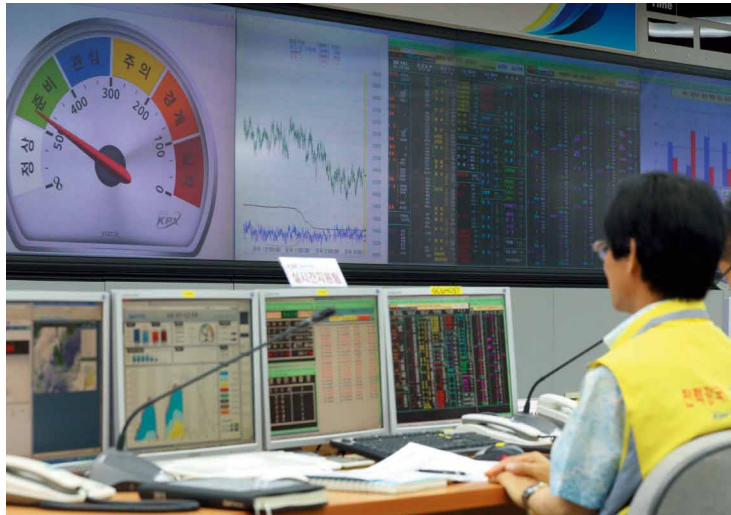
잦은 비에 대응하는 집 관리 비법도 기억하자. 담장이나 축대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건 기본이다. 흙이나 낙엽 때문에 배수구가 막히고, 이로 인해 물이 역류하거나 고이기 때문에 배수구 청소를 자주 해야 한다. 빗물이 새는 벽 틈과 창틀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엔 양초가 효자다. 촛농을 녹여 빈틈을 막으면 곰팡이와 악취를 예방할 수 있다. G

글·장원석 기자

블랙아웃

한마음 한뜻 전력에절을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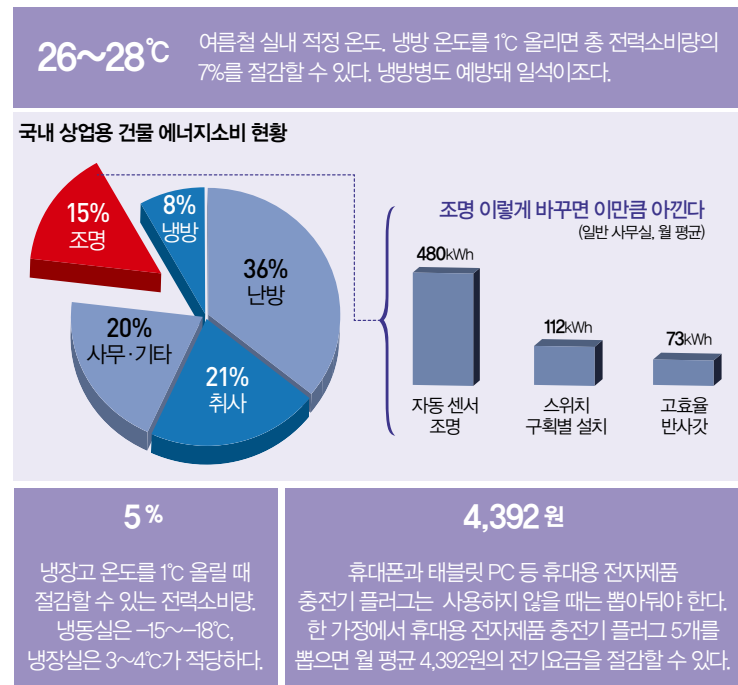
(에너지절약)

블랙아웃은 삶의 근간 흔드는 중대한 위협… 방송·인터넷·수돗물 모두 끊겨

이른 무더위의 영향으로 전력수급 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된 6월 1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 상황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숫자로 보는 에너지 절약

26~28℃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냉방 온도를 1℃ 올리면 총 전력소비량의 7%를 절감할 수 있다. 냉방병도 예방돼 일석이조다.

5% 냉장고 온도를 1℃ 올릴 때 절감할 수 있는 전력소비량. 냉동실은 -15~-18℃, 냉장실은 3~4℃가 적당하다.

4,392원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제품 충전기 플러그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뽑아둬야 한다. 한 가정에서 휴대용 전자제품 충전기 플러그 5개를 뽑으면 월 평균 4,392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다. 휴대전화는 꺼지고,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니 인터넷 접속도 당연히 안된다.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불을 켤 수 없고, TV와 에어컨을 켜는 건 꿈도 못 꾼다. 지하철은 멈춰 섰고, 신호등도 무용지물이다. 전기가 끊긴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현대인에게 블랙아웃은 삶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 블랙아웃은 전기 사용량이 전력 공급량을 초과해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을 뜻한다.

2003년 미국에선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송전선로가 나무에 접촉하면서 누전이 발생했는데 전력망을 제때 차단하지 못하면서 정전은 삽시간에 뉴욕·뉴저지 등으로 퍼졌다. 결국 동부지역 전체가 암흑 천지가 됐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을 경험했다. 반나절 만에 복구됐지만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다.

이후 정부는 전력 수요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위기대응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원전이 가동을 중단해 공급이 줄어든 데다 이른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탓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애초에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를 섭씨 26도로 제한하고,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는 섭씨 28도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7~8월 전기사용량을 15~20퍼센트 절감할 방침이다.

기업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서울 을지로 'SK T타워'는 퇴근하며 로비에서 사원증을 찍으면 직원의 사무실 개인 조명이 자동으로 꺼진다. SK텔레콤은 2011년 '클라우드 뱀스(BEMS)'라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건물 곳곳에 1,583개의 감지센서를 설치했는데 건물 내부의 전기와 가스 등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곳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제5의 에너지는 '에너지 절약'

포스코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공정을 중심으로 절전 가동방식을 채택하고, 자체 전기 발전량을 늘려 38만 킬로와트의 전기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다. 100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국가적인 전력 위기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정운희(52)씨는 지난해 아파트 내 전기를 가장 많이 절약한 가구 행사에서 2등에 뽑혔다. 정씨는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구청에서 나눠주는 책자에 있는 방법을 실행해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대기전력부터 잡았다. 멀티탭에 꽂힌 플러그별로 이름표를 붙여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뽑아뒀다. 한 가구가 낭비하는 대기전력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2만5천원가량이다. 전국 모든 가구로 환산하면 4천억원이 넘는다. 일일이 뽑아 쓰기 귀찮다면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만~3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월 3천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으니 1년만 사용해도 이득이다.

정씨는 TV 전원을 끌 때 셋톱박스의 전원도 함께 끄고, 시청할 때는 볼륨을 평소보다 줄였다. 냉장고 냉장실 온도는 섭씨 3도에서 4도로 올리고 생수와 장류 등 굳이 냉장보관이 필요 없는 제품은 밖으로 빼뒀다. 일반적으로 냉장고 온도를 1도 올리면 5퍼센트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정씨는 "전기밥솥의 보온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은 밥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이 좋다.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맛도 더 좋다.

'제1의 에너지는 불, 제2의 에너지는 석유, 제3의 에너지는 원자력, 제4의 에너지는 신재생, 제5의 에너지는 절약이다' 2009년 미국 타임지 신년호에 실린 내용이다. 절약만큼 훌륭한 에너지는 없다.

글·장원석 기자

블랙아웃 슬기롭게 대처하자

이렇게 대비하면 안심

- 불시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 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 미리 준비
-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설치
- 사전 정전 경보기 설치

정전, 당황하지 말고

-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 끄기
- 주택용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이상 유무 확인
- 승강기 안에 있다면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임의 탈출 금물

복구된 후에는

- 가전제품 하나하나마다 플러그 순서대로 꽂기
-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해야 과전류에 의한 손상방지 가능
- 식품이 얼어 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고기 등의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바로 버리기

산업재해

습한 여름… 감전·질식 사고 주의하세요!

중앙포토

여름철 감전재해 대비요령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2008년 8월 울산광역시 소재 건물 신축 공사현장. 핸드 절단기로 철근을 자르던 한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전날 저녁 내린 비가 고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하다 누전으로 감전된 것이다. 이 사고로 근로자는 목숨을 잃었다.

#2 2011년 7월 경상남도 소재 한 공장. 변전실 내 고압 변압기 전기 패널 내부를 청소하던 한 근로자가 6,600볼트 충전부에 몸이 닿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었다.

여름철 산업현장은 다른 계절보다 감전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산업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107명이 사망했다. 이 중 54퍼센트인 58명의 근로자가 여름철(6~8월) 감전사고로 숨졌다.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습기와 물기가 많아 감전이 쉽게 발생하고 더위로 인해 많은 땀을 흘리면서 작업자의 인체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가로등, 전기설비가 물에 잠겼을 때 누설되는 전류에 감전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여름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기에 접지(전기기기와 대지를 전선으로 연결해 기기의 전위를 0으로 유지하는 것)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한편 전기기기 정비·점검 시 전원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또 모든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외부전기공급함)에도 접지를 실시하고 이동형 전기기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감전 당사자를 직접 구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사고설비의 전원을 차단한 뒤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전 후 1분 내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할 경우 감전자의 95퍼센트가 소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준원(52) 산업안전실장은 “여름철 사망률이 높은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원적인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기공사를 설계·시공,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에는 산소결핍 등 질식으로 인한 재해도 자주 발생한다. 기온상승이나 집중호우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산소가 쉽게 고갈되고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 증가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름철 감전재해 예방 3대 수칙
▶접지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 시 주 전원 차단

여름철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장비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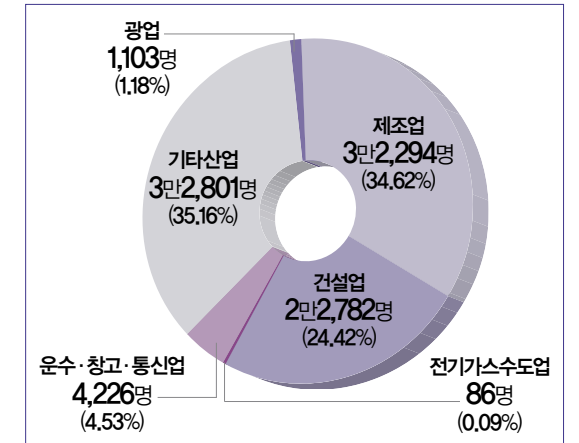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서 작업 땐 안전작업 수칙 꼭 지키세요”

그런 만큼 여름철에는 환기나 보호 장비 착용을 하지 않은 채 밀폐공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특히 산소 농도가 10퍼센트 미만인 상태의 공간은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수분 내로 사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5월 4일 경남 거창 한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분뇨를 모으는 정화조 내부에서 청소를 하던 외국인 근로자와 농장주 가족 등 3명이 황화수소에 질식돼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산업현장 질식사고는 총 79건으로 이 중 42퍼센트에 해당하는 33건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했다.

이 같은 여름철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환기를 해야 한다. 또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에는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감시인을 배치하고 인원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신현화(56) 직업건강실장은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면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G

글·박기태 기자

업종별 산업재해 (2011년 기준)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동남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올해부터 재난은 民·官 손잡고 막아낼 겁니다”

지난 5월 15일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단체와 협회 등이 인명구조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정동남 한국구조연합회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정동남(63) 공동위원장은 6월 18일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한국구조연합회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동남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올해는 민관이 협력해서 재난 현장을 신속히 복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구조 역량을 지닌 민간단체들이 한데 모여 정부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인명구조와 수색, 복구활동 등 각기 다른 역량을 지닌 단체들이 참여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위원회에는 총 25개의 단체가 참여한다. 재난구조협회·해병대전우회·의용소방대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삼성 3119구조단·KB 50인봉사단·KT 사랑의봉사단·LG전자 CSR팀 등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지원단이 활동할 예정이다.

전문 협회의 참여도 활발하다. 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재난관리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재난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피해 주민들이 충격을 극복하도록 돕는 의료 구호에 초점을 맞췄다. 건강가정진흥원은 이재민들이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협회는 피해 보상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동남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발족을 가장 기뻐하던 이 중의 하나였다. 오래전부터 민관이 협력하는 재난복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던 터였다. 한국구조연합회장이기도 한 그는 해외 재난 현장을 찾아가 복구를 도우면서 민간단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해외 재난 현장에 나가보면 민간구조단체들이 2~3주씩 머물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도 위로하고 피해복구 현장도 일으켜 세우고 하는 거죠.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민관이 공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관의 구조 실력이 뛰어난 만큼 서로 힘을 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전 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민관협력위원회가 생겨야 한다고 정부 쪽에 건의를 했어요.”

그는 재난 현장에서 민간구조단체와 시민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태안 자원봉사 이후 재난 복구에 참여하려고 한 일반 시민들이 권한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 공동위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민관협력위원회 발족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피력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안전한 나라 만들기’였잖아요. 재난 현장에서 국민들의 손을 붙잡는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민관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지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올해 2월부터 위원회에 참여할 민간단체들을 꾸려 모았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구조단체와 여러 민간단체들이 선뜻 참여에 나섰다. 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들은 평상시에는 예방활동과 안전점검 등 각 단체 고유의 역할을 하되 재난이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신속한 재난복구를 돕게 된다.

25개 민간단체 장비·전문기술, 재난복구에 활용

위원회는 각 민간단체가 갖추고 있는 장비와 전문 기술을 활용해 올해 벌어질 재난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 위원장이 올해 재난복구에 거는 기대도 크다.

“올여름만 해도 얼마나 큰 재난이 예견돼 있나요. 홍수와 산사태, 물놀이 사고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빈발하면서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다고 봐요. 삼성 3119구조단의 경우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죠. 이 장비들을 활용하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상황을 수습할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위원회는 예방 활동과 재난 대비·구조·복구 활동으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인 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그가 중점을 둔 분야는 위원회 내에 설치할 ‘이재민 지원팀’이다.

“이재민 지원팀을 소수 정예의 7인으로 구성할 거예요. 변호사, 성직자, 심리치료사 등 각 분야에서 베테랑인 사람들을 추천받아 이들이 이재민 지원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을 알아봐줄 수 있고 심리치료사는 재난 피해로 인한 이재민이나 피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돌봐줄 수 있어요. 또 성직자들은 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아직 7인이 전부 꾸려지진 않았지만 이들이 함께 다닌다면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공동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 1

“기업팀, 민간팀이 관과 합작으로 재난복구를 하는 모습을 앞으로 국민들이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재난복구가 좀 더 신속하고 국민 편의에 맞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 또한 복구 현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고요.” G

글·김슬기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25개 참여 민간기관

구분	기관·단체명
재난대비 및 안전개선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안전시민연합
재난안전 점검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인명구조 및 수색	(사)한국구조연합회, (사)재해극복범시민연합, (사)해병대전우회 안전봉사문화단체,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사)UDU중앙회 특수재난구조협회, 대한산악연맹
민간기업 지원단	삼성 3119구조단, KB 50인 봉사단, KT 사랑의 봉사단, LG전자 CSR팀
재난관리 기술자문단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재민 지원단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보험협회, 수중환경정화연합회

설경구·하지원 전봇대 대피는 '틀렸다'

〈해운대〉처럼 지진해일 몰려오면 담장이나 기둥은 무너지기 쉬워 위험

〈해운대〉를 통해 본 지진해일 대피법
"소지품 최소화하고 차보다 도보 이동이 안전"

JK필름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 수백만의 인파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산 시민들.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만식(설경구 분)과 연희(하지원 분) 위로 초대형 지진해일이 시속 800킬로미터의 무서운 속도로 밀려든다. 평온했던 해운대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검은 파도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삼키고, 가족과 연인의 손을 꼭 잡은 사람들은 더 큰 재앙을 피해 달음질하기 시작한다.

2009년 개봉돼 큰 화제를 모은 영화 〈해운대〉는 일본의 대마도가 내려앉으며 부산 해운대에 초대형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다뤘다. 상상만 해도 위험천만한 이 장면이 실제의 상황이라면 어떨까?

극 중에서 경보를 들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짐을 내던지고 높은 지대를 향해 재빨리 뛰기 시작한다. 이처럼 지진해일 경보가 발생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차보다는 걸어서 이동하는 게 안전하며, 소지품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

이에 반해 만식과 연희처럼 전봇대를 의지하는 장면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극 중에서 만식과 연희는 고압전선으로 인한 감전을 피해 전봇대 위로 올라가지만, 실제 전봇대나 기둥 등은 보이는 것만큼 튼튼하지 않다. 땅이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없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기둥이나 담에 기대기 쉽지만, 과거 일어났던 대지진의 사례를 보면 담이나 기둥이 무너져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진해일이 덮쳤을 때 비교적 안전한 곳은 오히려 바다다. 배를 타고 있으면 지진해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발휘된다. 먼바다일수록 지진해일의 파장과 속도는 작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해운대〉에서 원양어선이 거친 파도 속으로 침몰하는 장면은 지진해일보다는 폭풍해일을 묘사한 쪽에 더 가깝다.

CJ엔터테인먼트

〈타워〉를 통해 본 고층건물 화재 대피법
침착하게 화장실 대피… 유독가스 피하면 구조될 가능성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위해 108층 상공에서 인공 눈을 뿌리던 헬기가 돌풍에 휩쓸리며 건물을 들이받고 폭발한다. 80층 이상 상층부 스프링클러 배관이 얼어붙어 초기 진화에 실패한 '타워 스카이'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다. 지난해 개봉한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타워〉의 줄거리다.

초고층 건물에서의 재난은 현실과 먼 이야기가 아니다. 2008년 서울 강남구 H빌딩(18층) 화재, 2010년 부산 우동 골든스위트(38층) 빌딩 화재 등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재난은 언제든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엘리베이터 사용을 피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돼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차기 때문이다. 〈타워〉에는 건물의 다른 층으로 대피하기 위해 곤돌라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이다.

극 중에서 강영기 소방대장(설경구 분)은 쉽사리 꺼지지 않는 불길을 건물 유리로 깨뜨려 바깥쪽으로 유도하고, 헬기를 폭파시켜 완전 연소에 성공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처럼 고층이라는 두려움을 없애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건물 내 인명을 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7분으로, 유독가스만 피할 수 있다면 구조될 가능성은 크다.

먼저 뜨거운 불과 연기 속을 통과할 때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아야 한다. 화장실이나 창문이 있는 베란다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하면 모든 벽면이 불연재로 돼 있고, 수돗물이 공급돼 화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가시〉엔 없는 살인진드기 예방법
야외 작업 땐 소매·바지 끝 여미고 끝나면 옷 턴 뒤 세탁

오존필름

지난해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연가시〉는 2009년 꼽등이(귀뚜라미를 닮은 곤충으로 제주에서 처음 발견)와 함께 화제가 됐던 연가시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다. 연가시는 곤충의 몸에 기생하는 가느다란 철사 모양의 유선형 동물로 물을 통해 곤충의 몸속에 침투했다가 산란기가 시작되면 숙주의 뇌를 조종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살하게 하는 기생충을 말한다.

영화는 연가시의 변종이 나타나 포유류를 숙주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연가시가 사람의 뇌를 조작해 물가로 유인한 사례는 전무하다. 다만 진드기를 통한 감염병은 종종 발생한다. 작은소참진드기가 대표적이다. 지난 6월 4일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작은소참진드기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환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

한때 '살인진드기'로도 불렸던 작은소참진드기는 아시아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풀숲이나 야산을 중심으로 서식한다. 이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리면 바이러스 감염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라고 부른다. 이 감염병은 발열을 비롯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중증으로 발전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진드기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증상은 보통 진드기에 물린 후 1주에서 2주 정도에 시작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하고 1~2주가 지난 뒤에 38도 이상의 높은 열과 구토·설사 같은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나무나 풀밭에서 작업할 때는 진드기가 옷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매와 바지 끝을 여미고, 토시와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이 끝난 후에는 입었던 옷을 털어 세탁하고 목욕을 해서 혹시 옷이나 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진드기를 없애야 한다. G

글·백승아 기자

"해파리 쏘이고 민물로 씻으면 상처 악화"

집 침수 땐 전기차단 감전 방지… 칼·도마는 여벌 두고 따로 써야 식중독 예방

올해는 유난히 빨리 시작된 무더위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7월이나 돼야 시작했던 물놀이 사고 대처법이나 에어컨 폭발에 관한 주제 등을 6월에 미리 방영했을 정도니까요. 평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느라 정말 고생이었죠.

사실 〈위기탈출 넘버원〉 제작진은 보통 사람들보다 한 철 빠르게 삽니다. 재연과 실험을 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여름이면 가을 관련 촬영을, 가을에는 겨울 촬영을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방송되는 여름 관련 주제는 사실 봄철 차가운 물속에서 촬영한 것이랍니다. 제작진과 연기자들은 영하에 가까운 물속에서 저체온증과 싸우면서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는 것처럼 연기하고,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실험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장면을 보여줘야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제작진 스스로가 위험에 자주 노출됩니다. 말벌의 위험성을 알리는 촬영을 할 때는 위험한 말벌을 맨손으로 잡기도 하고, 물에 빠진 자동차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찍을 때는 침수된 자동차 안에 실제로 갇혀서 촬영을 합니다. 물론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으니 큰 걱정은 마세요.

사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난의 위험과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8년 가까이 이러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저를 포함한 제작진은 준전문가 수준의 안전 상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안전 상식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올여름 안전 상식 꼭 숙지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위기탈출 넘버원〉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G

글·정미영 (KBS 프로듀서)

1 바닷가에 놀러 가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파리를 조심하고, 만약 쏘였을 때는 바닷물로 씻어내라는 겁니다.

최근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바다에도 무서운 독성 해파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반드시 바닷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민물로 씻어냈다가는 피부에 남아 있는 독침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2 장마철에 집이 침수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꺼비집 내리기' 입니다.

주택 침수가 일어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전입니다. 영화 〈해운대〉에서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물속에 있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걸 보셨을 겁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도 침수 예외 지역이 아닙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의 특성상 감전사가 더욱 위험해요.

3 여름철 먹거리 안전 관리에 대해선 '삼계탕'을 예로 들게요. 요리할 때 생닭을 손질한 칼, 김치를 써는 칼, 그리고 도마는 반드시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생닭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캠필로박터균이 있습니다. 끓이면 없어지지만, 생닭을 썰 때 사용한 칼과 도마를 김치를 썰 때도 쓴다면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함께 만들어요! 4대악 없는 안전한 세상!

국민안전 종합대책

추진전략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생활안전지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안전관리 R&D와 인력 확대
국민운동을 통한 안전의식 정착

21개 분야 중점관리

산업단지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철저한 취급 시설, 유지, 점검 매뉴얼 운영, 교육
〈 인명피해 감축목표 〉
2012 67명 ▶ 2017 33명

원자력 안전관리

화재 예방

산불방지
〈 피해 면적 감축목표 〉
최근평균(10년) 734ha ▶ 2017 568ha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여름철 풍수해 안전관리
선제적 기상정보제공

지진재난 안전관리

자살방지
〈 자살사망률 감축목표 〉
2011 31.7명 ▶ 2016 28.5명
(10만명당)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노인 교통안전대책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강화
교통 인프라 구축
〈 교통사고 사망 감축목표 〉(10만명당)
2012 → 2017
어린이 1.3명 ▶ 1명
노인 31.6명 ▶ 25명

붕괴사고 안전관리

인터넷 음란물 근절

학교폭력
폭력서클 집중 단속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 피해경험률 감축목표 〉
2012 9.6% ▶ 2017 5.7%

성폭력
성범죄자 처벌 강화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대
〈 성범죄 감축목표 〉
2012 → 2017
재범률 7.9% ▶ 6.1%
미검률 15.5% ▶ 9.1%

여름철 물놀이 안전
〈 인명피해 감축목표 〉
최근평균(4년) 51명 ▶ 2017 38명

가스사고 전기 안전
〈 가스사고 인명피해 감축목표 〉
2012 8.4명 ▶ 2017 6.4명
(100만가구당)

식품안전
불량식품 사전예방 안전 강화
〈 안전체감지수 향상목표 〉
2012 67% ▶ 2017 90%

가정폭력
알콜, 도박 등 4대 중독 특별 관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확보
〈 재범률 감축목표 〉
2012 32.2% ▶ 2017 25.7%

보행안전
〈 보행자 교통사고율 감축목표 〉
2011 39% ▶ 2017 2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대책

● 4대악 관련 ● 안전사고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기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안전행정부

난중일기·새마을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기록한 〈난중일기〉.

국보 제76호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두 기록유산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IAC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회의로 홀수 해마다 개최된다.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96개국 238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IAC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 해당 유산의 독창성과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닌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난중일기는 이번 IAC 최종 심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등재심사소위원회에서 등재할 만하다는 '예비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사전 심사에서 다른 나라의 유사한 기록물과의 비교 사례를 보충해달라는 보완 판정이 나왔지만 문화재청이 자료를 보충해 지난 2월 유네스코에 제출했고, 마침내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등재된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1545~1598)이 전장에서 쓴 8권의 진중일기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년 동안의 기간을 총망라해 기록하고 있다.

개인이 쓴 일기 형식의 기록이지만 전쟁 기간 중에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매일의 전투 상황과 개인적 소회를 현장감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물로 평가받는다.

전투 상황은 물론 당시의 기후나 지형,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기록도 전하고 있어 당시의 자연 지형과 환경, 서민의 생활상에 대한 중요한 연구자료로도 활용된다. 또한 정부가 아닌 민간의 사가에서 14세대(1세대 30년 기준)에 걸쳐 보관돼왔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현황

유산명	등재일자	내용
훈민정음 해례본	1997. 10. 1	1446년 음력 9월 간행된 1책의 목판본으로 세종대왕의 공포문과 집현전 학자들의 해설 및 해례가 포함돼 있음.
조선왕조실록	1997. 10. 1	조선을 개국한 태조부터 철종까지 470여 년간 왕조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
승정원 일기	2001. 9. 4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서 매일 작성한 일기로 국왕의 하루 일과와 지시, 명령 및 국정회의 상소사료들을 총망라하고 있음.
직지심체요절	2001. 9. 4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6. 14	1237~1248년 경판 8만1,258장에 판각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불교 경전집.
조선왕조 의궤	2007. 6. 14	조선왕조(1392~1910)의 왕실 행사가 글과 그림으로 기록된 독특한 기록유산.
동의보감	2009. 7. 31	17세기 초에 왕명에 따라 발간된 의학 백과사전.
일성록	2011. 5. 25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쓴 일기 형식의 기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5. 25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물.
난중일기	2013. 6. 18	임진왜란 중 해군 사령관 이순신이 전장에서 직접 쓴 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2013. 6. 18	1970~1979년 새마을운동에 관한 정부 및 민간문서와 관련된 기록물.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정부와 주민이 협력해 빈곤퇴치, 생활환경 개선, 영농의 과학화, 정신혁명, 리더십 개발 등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 근대화의 증언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추진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모은 것으로, 여기에는 대통령의 연설문과 결재문서, 행정부처의 새마을 사업 공문, 마을 단위의 사업서류,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 원고와 편지, 시민들의 편지, 새마을 교재, 관련 사진과 영상 등 2만2천여 건의 자료가 포함돼 있다. 즉,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됐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원본이자 1차 자료인 셈이다.

새마을운동기록물.

총 11건으로 아시아 최다보유국에 올라

새마을운동기록물에 담긴, 주민참여를 통한 농촌개발은 일찍이 국제사회로부터 효과적인 빈곤퇴치 방안이자 대외원조 대안으로 인정받아왔다. 1970년대부터 2011년까지 129개국에서 5만3천명이 방한해 새마을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UN 세계식량기구와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은 빈곤퇴치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채택했다. 이 밖에도 2010년까지 18개 국가에서 157개 새마을사업이 전개되는 등 새마을운동기록물은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 학습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 2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한국은 총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등재 건수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 이번 등재가 기록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기록유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적극 발굴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6월 27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제3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공민왕릉, 만월대, 선죽교 등이 있는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G

글·백승아 기자 / 사진·문화재청

임금 줄어도 사회보장은 그대로 노동유연성 높아지자 일자리 늘어

독일·영국·스웨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보로 고용률 목표 달성

고용노동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보다 고용제도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도 사회복지 혜택은 전일제 근로자와 똑같이 받게 해주는 것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하는 데 필수 요소다.

영국
특정조건 되면 시간제 전환 요청권리 보장

영국은 1985~2010년 사이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남성 근로자들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는 2010년 11.7퍼센트, 반면 여성 근로자들의 시간제 고용 비중은 42.3퍼센트에 이른다.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 시간은 대략 전일제 근로자들의 42퍼센트였다. 남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의 40.4퍼센트였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46.0퍼센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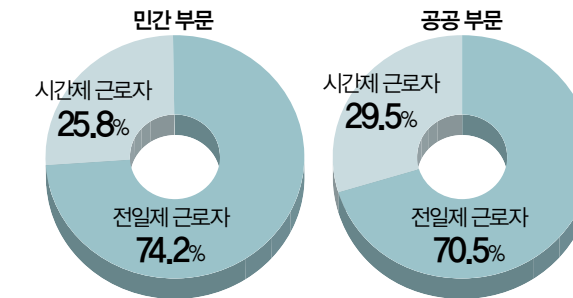
영국은 2009년 현재 민간 부문의 전일제 근로자가 74.2퍼센트, 시간제 근로자는 25.8퍼센트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은 전일제 근로자가 70.5퍼센트, 시간제는 29.5퍼센트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원 가운데 20.8퍼센트가 시간제 근로자다. 여성 공무원 중 시간제 비율은 33.2퍼센트이고, 남성 공무원은 6.8퍼센트다. 그런데 전체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84.7퍼센트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축제를 즐기고 있는 여성들. 영국은 여성 공무원 세 명 중 한 명이 시간제 근무를 하고, 전체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교직의 경우 1991~2008년 사이 17년간 시간제 교사의 비중이 약 2.3배나 늘었다. 보통 전일제 교사는 일주일에 오전 3시간씩 5일, 오후 2시간씩 5일을 일해 매주 25시간 근무한다. 시간제 교사의 경우 주 5일간 오전만 근무(주 15시간)하거나 주 3일은 오전, 1일은 오후 근무(주 11시간)를 한다.

사실 전일제 교사들에게 시간제 교사로 전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3년 전일제 근로자들이 특정 조건 아래 시간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는 법이 제정됐다. 2007년, 2009년 그 조건이 확대되어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8세 미만 장애 자녀를 둔 부모 ▶18세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돌보미로서 그와 함께 살거나 가까운 친척인 경우 시간제 전환 등 유연한 노동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영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 (2009년)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따른 고용률 상승

독일
근무시간은 전일제의 절반까지 감축 가능

독일 드레스덴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 공장. 이곳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라이케씨는 자녀 2명을 유치원에 먼저 데려다 준 뒤 오전 10시가 돼야 직장에 출근한다. 라이케씨는 원래 전일 근로를 하는 정규직 근무자였다. 그러나 7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간제 근로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한 해 독일에서는 전일제 근로자 100만명이 시간제 근로로 근무 형태를 전환했다. 독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현재 1413시간(한국 2193시간)이다. 독일의 전일제 근로자들이 시간제로 바꾼 이유는 임금이 줄어들지만 근로자로서 누리는 다른 혜택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독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것은 퇴직을 앞둔 고령 공무원의 새 일자리 준비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독일의 '시간제 근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근로자 당사자만 합의하면 공무원도 시간제 근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 기관은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피고용인의 시간제 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독일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는 크게 일반적인 시간제 공무원과 가사 사유로 인한 시간제 공무원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시간제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 적용 가능 대상이며, 10년 내에서 허용된다. 근무 시간은 전일제 근무시간의 50퍼센트까지 감축이 가능하다.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연금 혜택을 줄인다.

가사 사유로 인한 시간제 근무는 적용 대상이 18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공무원 또는 의학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동거 가족 보호 공무원이다. 이들은 총 15년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며, 전일제 근무시간의 50퍼센트까지 감축이 허용된다. 연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2003년 독일의 고용률은 64.6퍼센트 정도였다. 하지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 2003년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자 고용률은 2008년 70.2퍼센트, 2011년에는 72.6퍼센트까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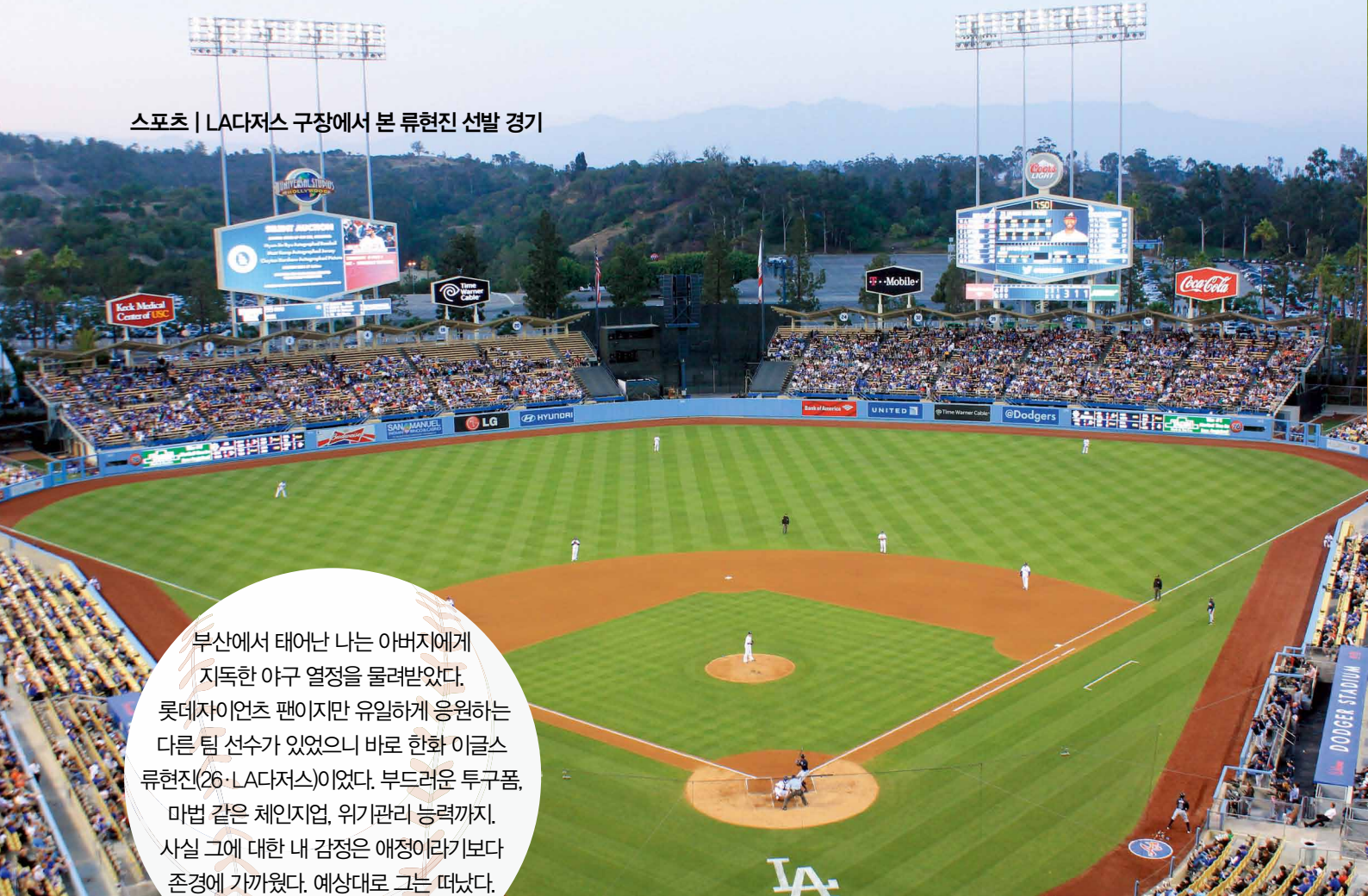
스웨덴
생계부양자 일자리 지원 목적으로 확산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산별 단체교섭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장을 보호받을 수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시간제 근로가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가 된 스웨덴에서 시간제 근로가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됐기 때문이다.

첫째,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 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생계부양자의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일과 생활의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었다. 둘째,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보장돼 있어 부가 급여, 사회 급여에서 차별적 대우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전일제 근로의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시간제 근로에 대한 수요가 커짐으로써 쉽게 안착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를 규정한 고용법은 민간·공공 부문 모두 적용된다. 공무원은 시간제 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시간의 근로를 택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도 시간제 근무를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G

글·이종훈(동아일보 파리특파원)

부산에서 태어난 나는 아버지에게 지독한 야구 열정을 물려받았다. 롯데자이언츠 팬이지만 유일하게 응원하는 다른 팀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한화 이글스 류현진(26·LA다저스)이었다. 부드러운 투구폼, 마법 같은 체인지업, 위기관리 능력까지. 사실 그에 대한 내 감정은 애정이라기보다 존경에 가까웠다. 예상대로 그는 떠났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로.

로스앤젤레스 북쪽 지역에 위치한 다저스스타디움. 미국에서도 아름다운 야구장 중 하나로 꼽힌다.

류현진의 역동적인 투구 동작을 연속 사진으로 엮었다.

Ryu! Ryu! Ryu! 4만명이 함께 외치다

30년 골수 다저스 팬들 전폭적인 지지 "올 시즌만 본다면 커쇼보다 안정적"

"선배, 류현진 경기 보러 가요?"

휴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머물던 6월 8일, 한국에 있는 후배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부상으로 등판이 미뤄져 낙심하고 있던 터다.

"부상 때문에 안 나온다며?"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나 보죠. 확정됐으니 알아보세요."

새벽 두 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평일 경기(애틀랜타 브레이브스-LA다저스)라 입장권은 어렵지 않게 구하리란 생각이 들었지만 안심할 순 없었다. 저녁 7시 경기니 시간이 촉박했다. LA다저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느린 인터넷 속도가 발목을 잡았다. 답답했다. 한국에 전화를 걸었다. 비싼 국제전화요금 따윈 안중에 없었다. 대여섯명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 시간 만에 입장권 예매에 성공했다.

낮 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끝냈더니 시간은 오후 5시가 됐다. 머물던 샌디에이고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까지는 차로 두 시간 거리. 가속 페달에 얹은 엄지발가락에 자꾸 힘이 들어갔다. 간신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경기장 입구는 명절 귀경행렬을 방불케 했다. 마음이 급해졌다. 3만 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크기의 주차장에서 스타디움까지는 또다시 15분. 걸을 수 없어 뛰었다. 심장도 뛰었다.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함성은 점점 커졌다.

"류! 류!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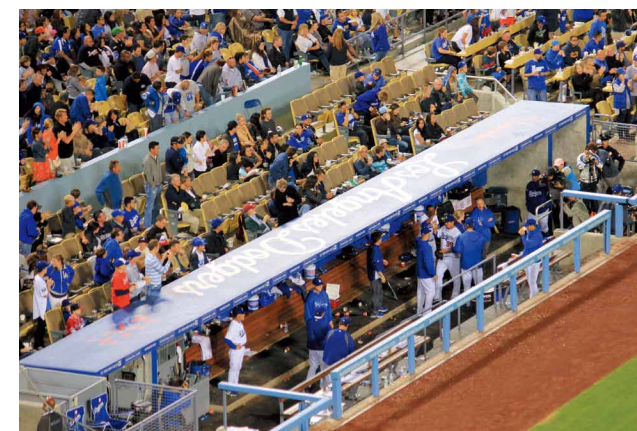
믿기 힘들 만큼 울림이 컸다. 4만명에 가까운 홈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류현진을 외치고 있었다. 위기에 몰린 투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 2사 주자 1, 2루 상황. 류현진의 손을 떠난 공을 상대팀 5번 타자 개티스가 힘차게 쳐냈지만 공은 우익수의 글러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여전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리를 찾아 앉았다. 기왕이면 비싸고 좋은 좌석에 앉고 싶었지만 등판을 당일에 알아차린 내 잘못이다. 약 700달러(약 80만원)에 달하는 제일 비싼 좌석이 남아 있었지만 솔직히 이건 엄두가 안 났다.

로스앤젤레스답게 류현진을 보러 온 우리 교민이 눈에 많이 띄었다. 마음씨 좋게 생긴 할아버지 사이에 앉았다. 30년 넘게 이 야구장을 찾은 열성팬이라고 했다. 한국인이라고 하자 '류(류현진)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잘했느냐'고 묻는다.

"최고였죠. 응원하는 팀과 무관하게 모두가 그를 좋아했어요."

"맞아. 류는 좋은 투수야. 올해만 놓고 보면 커쇼 이상이지."

클레이튼 커쇼 얘기다. 그는 LA다저스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2011년 사이영상(메이저리그에서 22년 동안 활약한 투수 사이영을 기념해 그해 최우수 투수에게 주는 상)을 수상한 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다. 그런 그보다 낫다고 하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8회초 교체돼 라커룸으로 복귀하면서 류현진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는 안타를 맞아도 흔들리는 법이 없어. 자기가 던지는 공에 확신이 있다는 뜻이지. 팍(박찬호)도 잘해줬잖아? 한국 투수들은 늘 기대만큼 해주는 것 같아."

LA다저스가 공격하는 틈을 타 다저스 핫도그와 맥주로 배를 채웠다. 2회초 류현진이 다시 마운드에 오르자 관중들은 커다란 함성으로 마중을 나왔다. 응원대로 그는 2회와 3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처진 팀을 구하러 나선 에이스의 향기가 물씬 풍겼다. 타석에도 들어섰다. 큰 덩치 때문인지 타석이 꽉 찬 느낌이다. 감을 조절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관중석에선 웃음이 터졌다. 1루까지 뒤뚱뒤뚱 뛰는 투수를 귀엽게 여기는 눈치다.

4회초 적시타를 맞고 1실점했지만 이후 류현진은 5회부터 7회까지 열명의 타자를 맞아 볼넷 하나만 내주는 완벽한 투구를 했다. 반대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약하다는 LA다저스의 타선은 소문대로 최악이었다. 안타 자체가 드물었고, 어쩌다 선두타자가 진루해도 좀처럼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류현진은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두 명의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한 뒤 마운드를 내려갔다. 그러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LA다저스 홈팬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최선을 다한 팀의 에이스에게 보내는 경의의 표시였다.

LA다저스는 연장 10회말 폭투를 틈타 대주자 슈마커가 홈을 파고들어 결승점을 올렸다. 처음 본 미국 프로야구 경기에서 끝내기 경기라니.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류현진도 승리가 확정되자 그라운드로 뛰어나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류현진은 6월 21일 현재 6승 3패, 방어율 2.96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가 끝나고 30여 분이 흘렀다. 느지막이 경기장을 나섰다. 여운을 좀 더 즐기고 싶었다. 급하게 들어오느라 못 봤던 대형 야구공 모형이 눈에 띄었다. 클레이튼 커쇼의 사이영상 수상을 기념해 만든 모형이다. 3~4년 내로 이 옆에 류현진의 모형도 생길 것이란 확신은 과연 나만의 것일까? G

글과 사진·장원석 기자

공산성을 단체 방문한 경주의 학생들이 성곽을 따라 걷고 있다. 울창한 숲이 있고 금강을 바라볼 수 있어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슬로 라이프' 천국

황톳길 금강자연휴양림·계룡산 등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명소 많아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세종시는 신생 도시지만 그 일원에는 의외로 가볼 만한 곳이 많다. 세종시 주변에는 특히 주말이나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손자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나들이하기에 좋은 명소들이 많은 편이다. 세종시에서 자동차로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주요 근거리 여행지들을 소개한다.

금강 일원
금강자연휴양림은 야영장·어린이 물놀이장 등 갖춰 인기

세종시는 금강 수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이다. 외지인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세종시 건설, 그 자체가 볼거리여서 세종시를 조망할 수 있는 밀마루 전망대에는 전국 각지의 번호판을 단 관광차량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지역을 포함해 세종시 남쪽을 동서로 관통하는 금강 일원은 향후 세종시의 주요 관광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첫마을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금강자연휴양림은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뿐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다.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이어서 산림욕을 하기에 더없이 좋다. 휴양림의 총면적은 약 180만평방미터 정도이다. 식물들이 내뿜는 특유의 내음 속에서 맨발로 숲 속을 걸을 수 있는 황톳길도 조성돼 있는 등 산책로가 잘 구비돼 있다.

또 휴양림 내에는 산림박물관과 식물원, 소형 동물원 등도 둥지를 틀고 있어 다목적 여가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7월부터는 야영장도 운영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니 서둘러 예약해야 한다.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는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도 개설한다. 휴양림에서 내려다보이는 금강의 풍경도 볼 만하다. 또 금강자연휴양림의 금강 맞은편 숲 속에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영평사가 자리하고 있다.

금강자연휴양림을 지나 금강을 따라 공주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공주를 대표하는 명소, 공산성이 나타난다. 강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경남 진주의 진주성과 유사한 느낌을 주지만 좀 더 투박한 맛이 있다.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가 잠시 공주였던 적이 있는데, 성 안에는 당시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도 있다. 삼국시대 역사는 물론, 인조반정 등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적지이다. 또 지금도 과거 유물들이 심심치 않게 발굴되는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금강을 향한 절벽이 성곽 북쪽의 기단부를 이루는 등 강을 끼고 있는 성곽의 대부분이 그렇듯 풍광이 빼어나다.

이 밖에 공산성과 금강자연휴양림의 중간쯤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석기시대 유적지인 석장리 유적지가 있다. 이곳은 석장리 박물관으로 꾸며져 보존되고 있는데, 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금강 중류 일원 지역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계룡산 일원
계룡산 도예촌·가마터는 체험학습 장소로 잘 알려져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등산로가 일품인 명산으로서 계룡산이 더 익숙하겠지만, 계룡산의 품 안과 주변에는 볼거리·즐길 거리가 적지 않다.

계룡산의 3대 사찰인 동학사, 갑사, 신원사는 그 하나하나가 국내 어느 절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명찰이다. 고찰 특유의 기품과 진중한 맛이 있다. 또 세종시에서 갑사와 신원사로 이어지는 691번 지방도 구간은 길지 않지만 드라이브하는 맛도 쏠쏠하다.

계룡산 도예촌도 지역사회에서는 꽤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체험학습에 관심이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특히 방문을 권할 만하다. 우리 전통 도예의 맥을 잇고자 하는 도예가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도예 작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 직접 빚어볼 수도 있다. 도예촌 주소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로, 계룡산 남쪽 자락의 깊숙한 골짜기 지형에 자리하고 있다.

계룡산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계룡대도 한번쯤 찾아가볼 만한 곳이다. 계룡대는 육군, 해군, 공군의 삼군본부가 위치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군사 요충지이다. 부대 방문 등은 제한돼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인이 장래 희망이거나, 국방과학 등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게는 남다른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세종시에서 계룡대로 이어지는 산속 길도 짧지만 계룡산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 길로 손색이 없다.

세종시 내륙
북쪽의 고복저수지 주변은 복숭아·포도 산지로 유명

세종시는 지리적으로 동서 폭은 좁지만 남북으로는 길이가 40킬로미터에 이르는 기다란 형태를 하고 있다. 세종시 고유의 아기자기한 여행지들은 대부분 북쪽에 몰려 있는데 조치원읍의 서쪽, 연서면과 전의면 지역이 그중에서도 대표적이다. 대체로 시골 정취가 가득한 이곳은 세종시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고복저수지가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고복저수지 일대에는 과거 연기군 시절 조성된 공원이 있다. 제법 규모가 큰 야외 수영장과 소공원, 그리고 캠핑장이 저수지 서쪽에 조성돼 있다. 물이 많을 때는 낚시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조치원 일대는 복숭아와 포도 산지로 유명한데, 고복저수지 근처는 특히 과수원이 많은 지역이다. 여름에서 초가을에 이르는 기간, 이곳을 방문하면 과수 농가들이 생산한 싱싱한 과일들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고복저수지에서 서쪽으로 지척에 있는 비암사라는 고찰도 오가는 길에 들러볼 만하다. 깊은 산속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단아하고 깔끔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절이다. 수령 800년이 넘었다는 느티나무도 눈길을 붙잡는다. 절 주변으로 울창한 숲 속 산책로도 나 있다. 또 절 입구에는 짧은 구간이지만 경사 방향을 오인하게 하는 도깨비 도로도 있다.

비암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금사가마골은 조선시대 왕실에 납품하는 자기를 구웠던 가마터가 있던 마을이다. 팜스테이 마을이기도 한 금사가마골은 충청 북부 내륙지역 특유의 농촌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가마골 근처의 세종시립 민속박물관도 오가며 잠시 머물 만한 공간이다. 소장품은 다소 빈약하지만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민속박물관으로 꾸며, 전통을 계승 보전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G

글과 사진·김창엽(자유기고가)

충남 홍성 사운고택 '우화정'

구름 닮은 고고한 선비의 기개 꽃비로 내리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홍남동로 989-22)번지에 위치한 사운고택은 양주 조씨 충정공파의 종가다. 고택 소유주인 조환웅 씨 부친의 이름을 본떠 '조응식 가옥'이라고 불리는 이 고택은 국가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198호로 지정돼 있다.
사운고택이라 불리는 연유는 조환웅씨의 고종조인 조중세(趙重世 1847~1898)선생의 호가 사운(士雲)이었기 때문이다. 이 고택의 또 다른 이름은 우화정(雨花亭)이다. '꽃비가 내리는 정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이다.

1 안채의 붉은 장미가 사랑채의 토종 장미와 대비를 이룬다.
2 안채의 뒤편으로는 송림이 어우러진다.

충남 홍성 고미당마을은 학성산 아래 반계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미(米)가 들어간 이름 그대로 벼농사가 주업이다. 미(美)라고 읽히니 아름다움인들 빠질까. 백제시대에는 왕이 잠시 머물렀다 해 '얼라하'라고도 불린다. 마을 인구는 100명이 조금 넘는다. 전형적인 시골이다. 양주 조씨는 병자호란 때 장곡면 산성리에 터를 잡았다. 고택은 19세기경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은 후손 조환웅 씨가 산다.

사운고택 우화정은 중요민속문화재 제198호다. 마을회관 옆 골목에서 100미터 거리다. 초입에는 52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있다. 노신제를 지내던 나무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친근하면서도 영험한 존재다. 몇 걸음 더 나아가니 정자 곁에 은행나무도 뿌리내렸다. 240년 수령이다. 든든한 고목이 너른 그늘을 드리운다. 길을 따라 짙은 초록의 나무들이 터널을 이룬다. 천천히 걸음을 낸다.

우화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비석 하나와 연자방아가 눈길을 끈다. 비석에는 고 조응식씨(1929 ~2010)가 지은 글이 적혔다. '배품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조가네 전통을 이어서 나가자'라는 글귀가 인상적이다. 조씨가 학성산에 올라 동생들에게 지어 가르쳤던 노래다. 양주 조씨 집안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의 아들 조환웅 씨가 작은아버지의 기억을 더듬어 비석으로 남겼다. 양주 조씨는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를 배출한 집안이다. 후로도 정승만 여섯 명이 나왔다. 한때는 본채만 99칸에 달하는 명문 부호였다. 현재는 60칸 남짓이 남았다.

시비를 뒤로하고 우화정과 마주한다. 입구는 여섯 칸 반짜리 대문채다. 왼쪽에 세 칸 반, 오른쪽에 두 칸이다. 그 가운데 솟을대문이 위치한다. 사운고택이라 적혔다. 사운(士雲)은 조환웅 씨 고조부의 호다. 구름 같은 선비란 의미다. 절로 유유자적(悠悠自適)이란 말이 떠오른다.

행랑채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담장에는 대문이 하나 더 있다. 안사랑채로 들어가는 협문이다. 얼방문(乻方門)이라 적혔다. 얼(乻)은 큰 어른을 뜻하는 한자로 백제의 임금을 말한다. 장곡면은 원래 오사면과 성지면, 얼방면으로 이뤄져 있었다. 얼방은 백제의 왕을 기리는 옛 지명을 기억하려는 의지다.

솟을대문을 지나자 '一'자형 사랑채가 맞이한다. 그 뒤쪽에는 'ㄱ'자형의 안채가 위치한다. 동쪽 협문의 안사랑채는 그 오른쪽이다. 행랑채와 사랑채 사이의 마당은 그리 넓지는 않다. 한적하게 햇살을 받으며 걷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남서향이라 볕이 따스하게 기운다. 건물 뒤쪽으로는 낮은 산의 소나무들이 우거진다. 기와는 노송의 푸름을 등에 인다. 마당의 좌우에는 정원을 꾸몄다. 봄날의 철쭉이 필 때 가장 화려하다.

뒷산 노송의 푸르름과 마당의 화려한 정원 조화

사랑채는 다섯 칸 반 크기다. 장방형 돌로 정성껏 쌓은 기단 위에 지었다. 얼핏 봐도 굳세고 단단하다. 계단을 올라 안을 살핀다.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좌우에 방을 배치했다. 대청마루는 한 칸이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사랑채에서 두드러지는 공간은 오히려 동쪽 끝자락의 누마루다. 역시 한 칸의 작은 방이지만 누마루가 갖는 풍류는 여느 고택과 다르지 않다. 특유의 시각적 환희다.

삼면으로 열린 문으로 사방의 풍광이 들어찬다. 남쪽으로는 토종 장미가 핀 화단이다. 정원의 화사한 푸름이 안긴다. 그 곁으로 행랑채의 전경이 솟을대문까지 이어진다. 동쪽으로는 안채의 돌담이다. 곳간인 토지광도 보인다. 여닫이가 일반적이나 우화정

1 차 한 잔의 여유가 한옥을 더 매혹적으로 만든다.
2 사군자와 뒤뜰의 풍경이 어우러진 안채의 바깥 창.
3 대문에는 오복을 불러온다는 '龍'자가 또렷하다.
4 사운고택으로 들어서는 마을 초입의 520년 수령의 느티나무.
5 안채의 대청은 넓고 은은한 기운을 풍긴다.

12대 종손 조환웅씨

"고택은 우리 모두의 소유… 항상 문을 열어두죠"

"항시 문을 열어둬요. 국가 문화재라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해요. 이 집의 소유가 나로 돼 있어 그렇지 우리 옛 한옥을 보고 느끼고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의 소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조환웅씨는 장곡면에서 12대째 양주 조씨의 대를 잇고 있다. 이후에는 학교와 직장생활을 하며 외지에서 지다가 마흔 살이 돼서야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고향에 집이 있고 농토가 있다는 건 선택받은 삶이라고 말한다.

"한옥은 정신문화가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묵어가는 이들이 자고 일어나서는 직접 이불을 개고 청소를 해요.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도 다도체험을 시작하면 조용해지지요. 예전에는 대학교수나 학자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외국인도 간간이 오고 층이 훨씬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는 고택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많다. 그 변신을 지켜보는 건, 우리 고택의 다양한 접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기대감이다.

은 조금 다르다. 판자를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끼워 문을 닫는다. 도둑을 막는 데 유리하다. 서쪽은 사랑채의 툇마루다. 기둥과 서까래가 격자의 문양을 그리며 도열한다. 낡은 마루도 탐스럽다. 그 너머의 화계 또한 먼발치에서 시선을 끈다.

현판도 흥미롭다. 안쪽에는 고택을 아우르는 '우화정(雨花亭)'이다. 꽃비가 내리는 집이다. 곱디고운 이름이다. 글씨 또한 예사롭지 않다. 영조 때 문신 자하 신위(申緯)가 썼다. 그는 회화와 서예에 능했다. 조선 3대 묵죽화가로 유명하다. 사운고택에 머물 때 뜰 앞에 벚나무가 있었는데 벚꽃 잎이 마치 빗방울처럼 흩날렸다. 그 풍경을 보고 붙인 이름이다.

바깥으로 나오면 또 한 번의 반전이다. 이번에는 수루(睡樓)라 적혔다. 풀이하면 낮잠 자는 집이다. 꽃비와 낮잠의 기묘한 대비는 누마루 아래에 쓰인 천하태평(天下太平)으로 귀결한다. 냇돌로 쌓은 회벽 위에 기와로 써 넣은 글씨다. 글자 사이에는 건곤감리의 팔괘 무늬를 새겼다. 천하의 태평이 세상과 조우한다. 생의 멋을 아는 이의 기상이다. 눈을 감고 때 아닌 낮잠을 청해봄 직도 하다.

안채는 누마루 옆으로 난 중문 너머다. 사랑채의 서쪽에도 문이 있지만 누마루 옆이 주 출입구다. 안으로 걸음을 내기에 앞서 안채 모서리의 붉은 장미들이 시선을 유도한다. 조환웅 씨가 심었다. 토종 장미와 대비를 이룬다. 곧 'ㄱ'자형의 안채가 모습을 드러낸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부엌 등이다. 윗방은 서쪽 바깥으로 나가는 복합문을 뒀다. 장독과 텃밭으로 쉬이 오간다.

한글 요리책 〈음식방문〉에 반가의 상차림 69가지 조리법 담겨

안채 서쪽에는 축대 위에 장독대가 가지런하다. 항아리들은 제 몸에 깊은 맛을 품어 익힌다. 병풍처럼 산을 향해 오르는 돌담마저 곱다. 그저 어느 집안에나 익는 풍경이려니 하지만 사운고택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다. 대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수하던 요리의 비법이 있었다. 〈음식방문(飮食方文)〉이라는 한글 음식 조리서는 숙부인 전의 이씨(1867~1938)가 써서 기록으로 남긴 요리책이다. 술·떡·김치 등 69가지의 조리법이 적혀 있다. 충청도 반가의 상차림을 엿볼 수 있다.

안채에서는 안사랑채도 길이 열린다. 다만 광채가 있어 경계 역할을 한다. 안사랑채는 앞서 말했듯이 행랑채 동쪽의 얼방문(乻方門)으로도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정면 네 칸, 측면 두 칸의 규모다. 곳간 열쇠를 넘긴 만종부가 머물던 공간이다. 집안의 여자 손님을 맞는 접객 장소로도 쓰였다. 예전에는 대문 쪽으로는 초가도 있었다.

바깥에서 보면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가세를 자랑하기보다 몸을 낮춰 마을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다. 안채에는 조환웅 씨가 조모를 기려 건 보현당(寶賢堂)이라는 현판이 있는데 이를 증명한다.

우화정은 6·25전쟁 당시 인민군 사령부로 쓰였으나 화를 당하지 않았다. 안주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덕을 베푼 까닭이다. 안사랑의 마당에서는 뒷산의 소나무와 한옥의 어울림이 가장 아름답다. 괜스럽지 않다.

우화정의 모습은 본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문 밖으로 나오면 행랑채 앞개울 건너에 연못이 있다. 원래 청한루라는 정자가 있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는 길가에 연잎이 싱그럽다. 7월에는 붉은빛의 연꽃을 피워 올리겠다. 작은 개울을 가로질러 들마루를 놓은 쉼터도 있다. 신발을 벗고 쉬어가기에 좋다.

조환웅 씨는 우화정 일대를 수목원으로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고택의 여유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돌아보니 사운고택(士雲古宅)이란 이름이 새삼스레 살갑게 느껴진다. G

글과 사진·박상준(여행작가)

여행수첩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로 나와 교차로에서 우회전. 단아래사거리 직진 후 광천읍내와 장곡면 지나 96번 지방도 산성삼거리까지 직진. 삼거리에서 좌회전 150미터 후 산성리경로당 끼고 왼쪽 길 160미터.

광천시외버스터미널에 하차. 옆에 있는 광천터미널에서 청양·옥계 방면 버스 이용 산성삼거리(반계) 하차. 북쪽 150미터 산성리경로당 끼고 왼쪽 길 160미터.

장항선 광천역에 하차. 역을 나와 오른쪽 길 300미터 광천터미널 이동. 청양·옥계 방면 버스 이용. 산성삼거리(반계) 하차. 북쪽 150미터 산성리경로당 끼고 왼쪽 길 160미터.

석이네토굴새우젓백화점 홍성의 광천 하면 역시 젓갈이다. 석이네토굴새우젓백화점은 식당을 겸한다. 젓갈 쇼핑은 물론 젓갈백반도 맛볼 수 있다. 홍성은 한우도 특산물인데 조양문 인근의 한우일번지(041-634-6744)가 좋다.
☎ 041-641-4127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54-28

사운고택 우화정 ☎ 010-6822-2080.
내비게이션 검색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

막국수 "막 대하지 마세요!"

중앙포토

생각해보면 막국수 입장에서는 오늘날 자신의 신세가 원망스러울 것도 같다. 같은 메밀국수 처지인데도 냉면은 일단 이름이 점잖은 것은 물론 가격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귀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냉면도 고향인 평양에서는 흔히 '국수'로도 통했는데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는 고서에도 나오는 냉면이라는 품격 있는 호칭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노는 물도 다르다. 냉면은 단골이 줄을 서는 도심 전문점의 주인공이거나 유명 갈비집과 고깃집의 식사 품목으로 대접받는 데 반해, 막국수는 강원도 산골이나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막국수집 주 메뉴이거나 기껏해야 닭갈비집의 서비스 식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가격 차이는 더 심해서 막국수의 두 배를 더 받는 냉면도 허다한 실정이라 도무지 같은 재료로 만든 비슷한 음식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곡절이야 여럿 있겠지만 우선 막국수라는 명칭도 그 연유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막국수에는 '막사발'이나 '막말'처럼 이름 앞에 '아무렇게나 함부로'라는 의미의 '막'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다. 이렇게 막 지은 이름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는 난망한 것이 아닐까.

사실 막국수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주장이 존재한다. 우선 닥치는 대로 대충 해 먹는 국수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정해진 조리법이 있어서 정교하게 만들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무 때나 집에 있는 재료로 거충거충 해 먹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집집이 면의 메밀 함량이나 육수, 고명이 다르다는 것인데 일리가 아주 없는 견해는 아니다.

두 번째는 순식간에 뽑아서 금방 먹어야 하는 국수라서 그런 명칭이 붙었다는 의견이다. 메밀국수는 옆집에도 배달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뽑으면 바로 들러붙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하는 데서 생긴 이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메밀가루의 품질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설이다. 재래식으로 맷돌에 타서 껍질을 벗기던 시절에는 갈아진 메밀 알을 키로 까불러서 과피가 벗겨진 것과 벗겨지지 않은 것을 선별했다. 그때 잘 벗겨지지 않은 알을 따로 모아서 제분한 것을 막가루라 했는데 그것으로 만든 국수를 막국수라고 했다는 것이다. 식품사학자 고 이성우 교수 같은 이는 사리에 "식초, 겨자, 육수, 양념간장을 쳐서 마구 먹으니 막국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막국수라는 이름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어느 것도 정성이 듬뿍 들어간 고급 음식이라는 인상은 주지 않는다.

막국수가 막된 대접을 받게 된 현실에는 일부 식당들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 메밀 함량이 턱없이 낮은 면에 고추장과 설탕으로 범벅을 한 양념장을 얹어내는 막국수로는 미각이 날로 세련되어가는 고객을 결코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음식의 상업적 성공에도 좋은 브랜드 네이밍과 철저한 품질관리라는 경영원칙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옛날에는 구황작물로나 알았던 메밀이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메밀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루틴은 뇌졸중과 동맥경화의 예방은 물론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도 효험이 있다고 한다.

막국수의 명가로는 강원도 춘천의 유포리막국수와 대룡산막국수, 고성의 백촌막국수, 인제의 남북면옥, 봉평의 현대막국수, 홍천의 장원막국수 등이 손꼽힌다. 경기도에서는 여주 천서리의 강계봉진막국수, 파주의 오두산막국수가 유명하고 서울에서는 방화동의 고성막국수에서 메밀 함량이 높은 막국수를 맛볼 수 있다.

글·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한푼, 두푼… 조선의 상공업을 열다

중앙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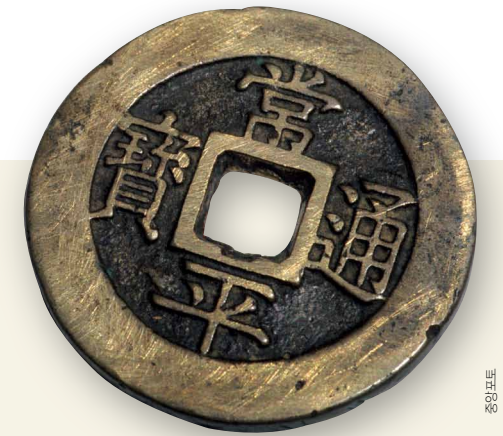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지폐인 저화(楮貨)와 세종대에 만들어진 조선통보를 사용하였다. 또한 세조대에는 유사시에 화살촉으로 사용하고 평화 시에는 화폐로 사용하는 유엽전(柳葉錢)을 법화로 주조해 유통시키기도 하였으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쌀이나 포(布)가 화폐의 주요 기능을 했다. 저화나 동전은 화폐로서 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부터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찾아왔다. 무엇보다 두 차례의 전란 이후에 찾아온 조선의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화폐 유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전란의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 재건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대동법·호포법·주전론(鑄錢論) 등의 정책이 제기되었는데, 이들 정책은 농업 중심의 조선 사회가 점차 상공업 사회로 지향해감을 보여주고 있다. 화폐의 주조를 주장하는 주전론은 생산력의 발달과 국제교역의 성장,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조세를 돈으로 납부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그 요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1678년(숙종 4) 숙종은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폐의 주조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화폐는 천하에 통행(通行)하는 재화인데 오직 우리나라에서 행해지지 못했던 것은 동전이 토산(土産)이 아니라는 점과 중국과는 달리 화폐를 유통시키는 분위기가 저조했음이 지적되었다.

이어 허적·권대운 등의 신하들이 화폐의 시행을 적극 건의하고, 신하 대부분이 화폐 유통의 필요성에 공감하자 숙종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호조·상평청·진휼청·어영청·훈련도감 등의 기관에 명하여 상평통보를 주조하게 한 것이다. 돈 4백문(文)을 은 1냥의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으니, 은 한 냥은 동전(상평통보)의 4배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셈이었다.

지금은 한국조폐공사에서만 화폐를 만들지만, 조선시대에는 여러 관청에서 화폐를 주조하였다. 상평통보는 나무처럼 생긴 주전틀(돈을 만드는 틀)에서 동전을 만들어 떼어내는 방식을 취했는데, '엽전'이라는 용어도 동전이 주전틀에 나뭇잎처럼 달려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상평통보가 만들어지면서 조선 사회는 본격적인 화폐 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화폐 단위인 1문은 1푼이라고도 했으며, 10푼이 1전, 10전이 1냥이 되었다. 10냥은 1관으로서 관이 최고 화폐 단위였다. 조선 후기 1냥의 구매력은 쌀값 등과 환산해볼 때 대략 4만~5만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최소의 단위인 1푼은 지금의 400원 정도 되는 셈이다. 동냥하는 사람들이 하는 '한푼 줍쇼'라는 말은 조선의 화폐 단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평통보 유통 초기에 백성들은 조그만 동전으로 쌀이나 옷을 과연 살 수 있을지를 두려워하여 그 유통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전을 가져오는 자에게 직접 명목 가치에 해당하는 현물을 바꾸어 주는가 하면, 중앙 관리를 각 지방에 파견하여 동전 사용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가 직영하는 시범 주점과 음식점을 설치하여 화폐 유통의 편리함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세금을 화폐로 받고, 한성부·의금부 등에서는 죄인의 보석금도 현물 대신에 동전으로 받으면서 화폐 유통을 촉진시켜 나갔다.

숙종대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된 배경에는 국가의 화폐 유통에 대한 의지와 함께 조선 후기 농업 사회가 서서히 상공업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적 상황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편 국가에서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상업과 수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화폐의 유통은 동전의 재료가 되는 광산 개발과 상업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르러 화폐를 집에 보관만 하면서 발생하는 화폐의 품귀 현상인 전황(錢荒) 이 발생하여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양반 관료나,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축적하였기 때문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글·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선택의 기로에 선 당신에게

〈첫번째 펭귄의 선택〉

김찬호 지음
다연 · 1만5천원

집단생활을 하는 펭귄들은 먹잇감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기 전 물개나 바다표범과 같은 천적이 두려워 다른 펭귄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습성이 있다. 이때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과감하게 바다에 뛰어들면 이에 자극을 받은 다른 펭귄들도 하나둘씩 바다에 뛰어든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관용어는 이 '첫번째 펭귄'에서 유래했다. 모두가 주저하는 선택의 순간에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는 모습은 비장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첫번째 펭귄과 닮아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퍼스트 펭귄이 되기란 어렵다. 단호히 결심을 하고 선택했음에도 그 결과를 놓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상황을 줄이고자 선택의 순간마다 신중을 기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속 펭귄처럼 누군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주기를 기다리며 능동적인 선택을 보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른다.

〈첫번째 펭귄의 선택〉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선택의 문제를 다룬 자기계발서다. 보험회사 교육 담당자 출신인 저자는 현재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다. 강의의 주제는 '선택'으로, 그는 블로그(www.1stpenguine.com)를 통해 강의 일정과 내용 등의 정보를 대중들과 공유한다.

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선택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가'이다. 저자는 행동경제학, 신경과학, 심리학 등의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선택의 문제에 접근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가장 먼저 선택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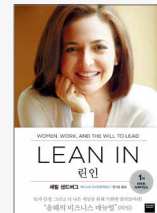
책은 총 2부에 걸쳐 '선택하고 선택받는' 최선의 선택법을 밝힌다. 먼저 1부에서는 '선택하기'의 문제를 다룬다. 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할 수 있는 선택,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공존의 선택,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갈수록 멈추지 않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그 이상 커나갈 수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며 독자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2부에서 이어지는 '선택받기'의 문제는 구체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설한다. 신경과학의 선택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 행동경제학의 선택이론을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등 선택을 받기 위한 일종의 구체적인 팁이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받기 위한 비법도 이야기한다.

갑갑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주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선택의 지혜가 담긴 이 책과 함께 '첫번째 펭귄'을 따라가보자. 행복한 꿈과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과 앞으로 해야 할 선택의 윤곽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G

글 · 백승아 기자

새로 나온 책

린 인

셰릴 샌드버그 지음
와이즈베리 · 1만5천원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 아이콘으로 불리는 셰릴 샌드버그가 진솔한 삶과 생각을 담은 책을 펴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여성이 경력을 쌓고 사회에 영향력을 펼치기까지 맞닥뜨려야 하는 장애물과 편견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다각도로 모색했다.

촌놈

김영수 지음
좋은땅 · 8,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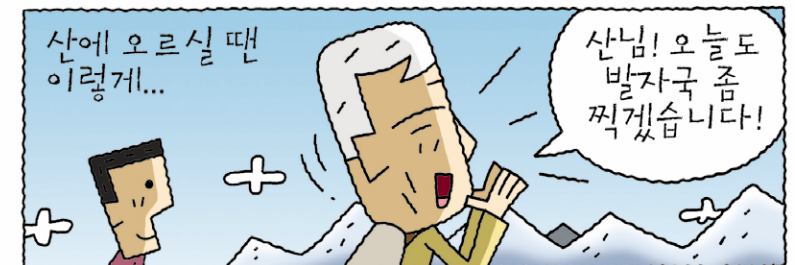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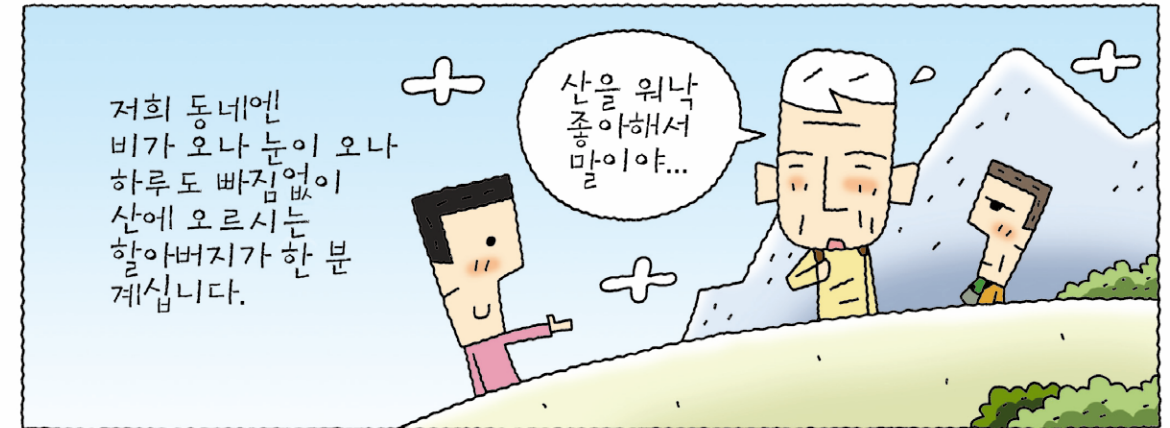
1970년대의 시골 생활을 정감 있게 묘사한 책이다. 현직 회계사인 저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소소한 추억을 경험을 바탕으로 재치 있게 담아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상'으로 나뉜 파트에는 촌놈들의 메뚜기잡기, 쥐불놀이, 개구리다리 구워먹기 등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숨어 있다. 재미있는 삽화가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내 마음을 읽는 28가지 심리실험

로버트 에이벨슨 등 지음
북로드 · 1만6천원

인터넷에 난무하는 악성댓글, 한낮의 묻지마 살인 등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소식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책은 사회심리학 실험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리를 보여준다. 100년이 넘는 사회심리학 역사에서 대표적인 실험 28가지를 골라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행위의 이유를 설명한다.

메아리 할아버지의 외침

글과 그림 · 최영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I. 칸트(독일의 철학자)

제33회 서울연극제 대상 수상작 창작 연극 〈그리고 또 하루〉의 한 장면.

절망과 희망의 의미를 묻다

연우무대 60번째 정기공연 〈그리고 또 하루〉

30년 넘게 창작극을 제작해온 극단 '연우무대'가 60번째 정기공연으로 연극 〈그리고 또 하루〉를 선보인다. 지난해 제33회 서울연극제에서 대상, 희곡상, 무대미술상, 여자연기상 등 4관왕에 오른 작품으로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할 정도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올해는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의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작으로 선정돼 새롭게 관객들을 만난다.

극은 무인도에 불시착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무인도에 불시착한 남자는 탈출을 목표로 하고,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라는 현실에 집중한다.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면 이 둘의 욕망은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된다. 남자는 관계를 통해 희망을 찾고자 하고, 여자는 '빛고래'로 형상화된 보다 근원적인 희망을 좇는다. 작품은 오로지 단둘만이 존재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툼, 사랑, 분노의 감정을 통해 인간 본연의 생존본능과 희로애락을 보여준다.

올해 공연에는 탄탄한 연기력과 감각적인 연출로 인정받은 배우들과 제작진이 총동원됐다. 2011 창작팩토리 우수작품제작 지원공모 심사를 비롯해 다양한 평단으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은 최명숙 작가가 극본을, 연극 〈해무〉 〈길삼봉뎐〉 〈삶〉의 안경모 연출가가 감독을 맡았다. 안경모는 문학적 텍스트를 보다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구현해내 지난 공연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 역시 대사에 음악적인 리듬과 템포감을 실어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다.

배우들의 면면도 뛰어나다. 대한민국 연극대상 연기상, 서울공연예술제 연기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중견배우 남명렬, 이화룡과 이전 공연에서 깊이 있은 연기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던 배우 이지현이 출연해 극적 완성도를 높인다.

외딴 섬에서 삶의 근원적인 희망과 살아감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두 남녀를 지켜보며 관객들은 절망과 희망, 독립과 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G 글·백승아 기자

기간 6월 30일까지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 02-744-7090

뮤지컬

〈쿵 페스티벌〉

세계 최초의 비보이 전용극장에서 선보인 뮤지컬 〈비보이 쿵〉의 업그레이드작이 무대에 오른다. 음악과 춤으로만 이뤄진 넌버벌 뮤지컬로, 한류와 젊음을 대표하는 비보이 댄서들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다. 국내 최고의 댄서들이 펼치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코믹 연기가 재미와 활기를 선사한다.

기간 6월 30일까지
장소 에스제이비보이즈
문의 ☎ 02-323-5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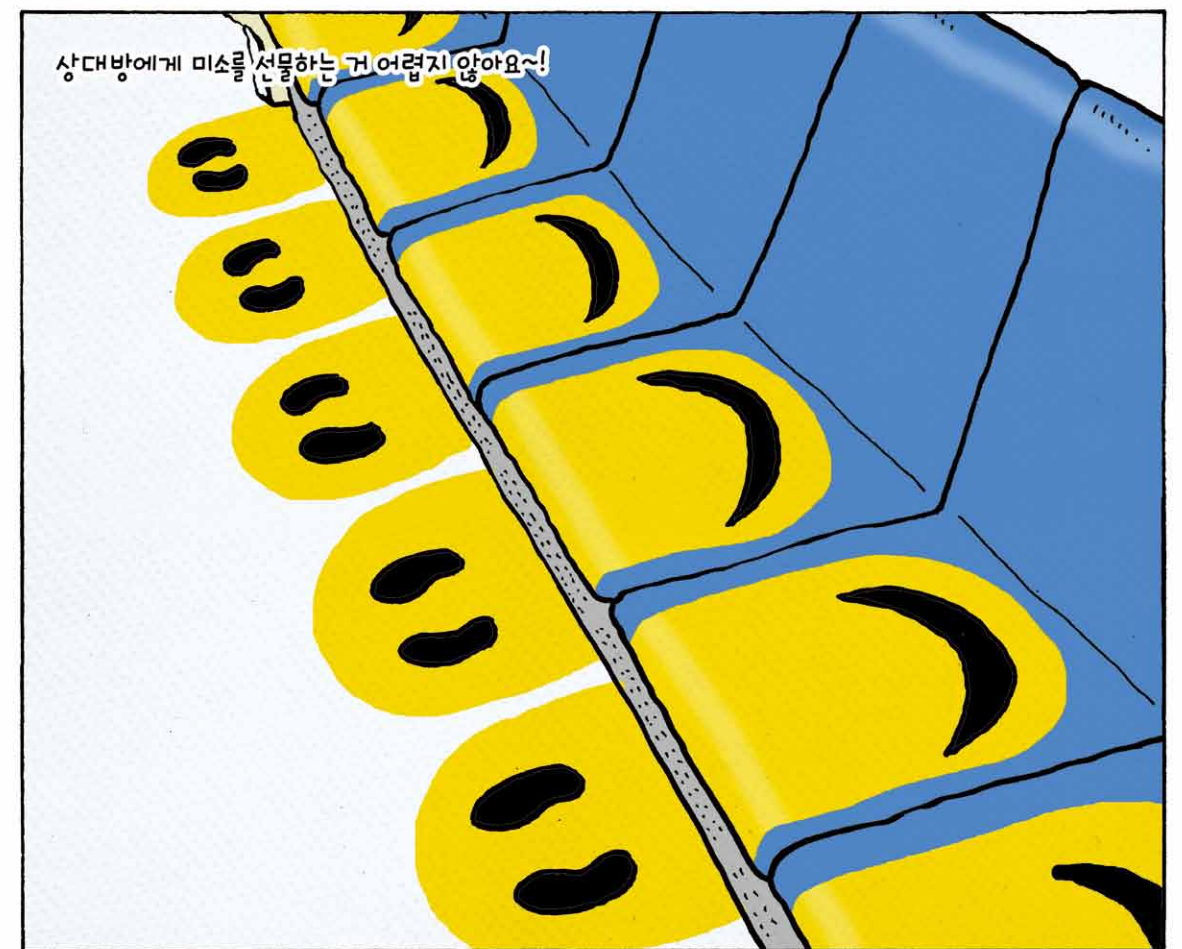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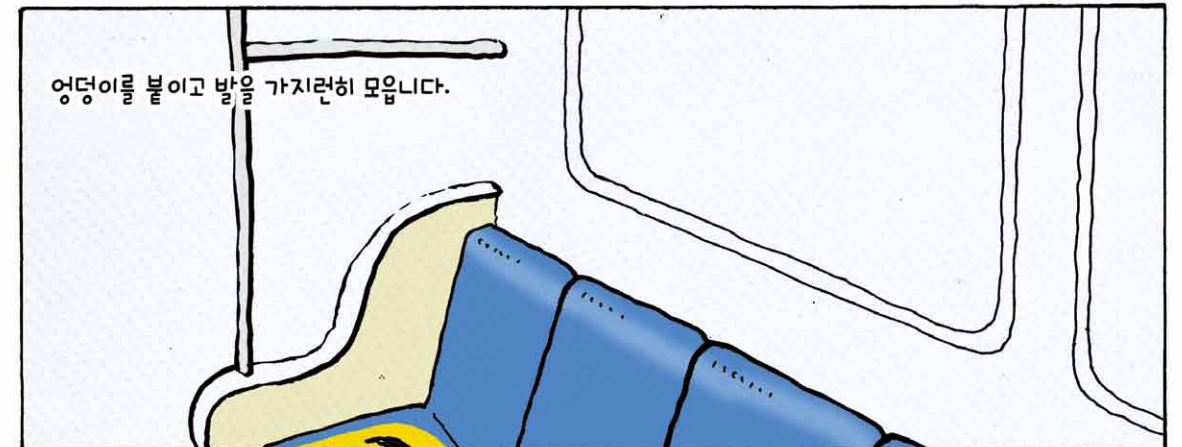
전시

〈내셔널 지오그래픽展〉

미국 국립지리학회가 만든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사진전 '아름다운 날들의 기록'을 선보인다. 전시는 생명력 넘치는 길짐승들, 열정 가득한 수중 생물들, 마음을 흔들어놓는 풍경들, 자연의 일부인 사람들 등 5개 관으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가들의 얼굴이 담긴 생동감 넘치는 촬영 현장도 함께 공개된다.

기간 6월 30일까지
장소 국립대구박물관
문의 ☎ 053-768-6051

스마일 좌석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지하철에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스마일하게 앉아보아요~

행복은 우리 곁에

일러스트 : 강일구

나는 지난 10여 년간 저술로 강연으로, 혹은 사적으로 긍정 코드의 노래를 고집스러울 만치 일관되게 불러왔다. 그랬더니 곧잘 반격의 질문들이 날아오기도 했다.

"스스로는 어떠신지요? 진짜 행복하세요? 책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던데, 혹시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세요?"

나의 답은 요지부동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행복'에 대해 말하고 다닌다면, 그게 바로 사기꾼이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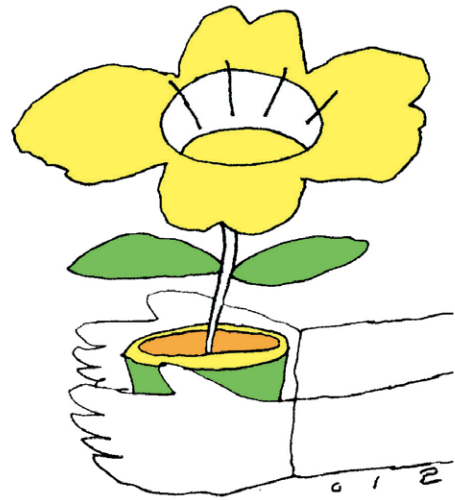
나는 행복에 대한 자신감을 영어 단어 'Happiness'에서 얻었다. 행복을 뜻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발생한다'는 뜻을 지닌 'Happen'이다. 이는 "행복은 발생하는 것이지 소유되거나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소유는 어려워도 발생은 쉽다. 발생은 발상의 전환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번 미소 지어보라. 큰 소리로 웃어보라.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보라. 다른 게 행복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행복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이다.

이쯤에서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른다. "아, 누가 몰라서 그래? 망해봐, 웃음이 나오나. 회사에서 속상한 일 생겨봐, 애들이 속 썩여봐, 실패해봐, 어디 가서 안 좋은 얘기 들어봐, 표정이 굳어지는 걸 어떡해. 그런데도 웃으라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일리가 있는 말이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우리 삶에서는 불행의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뇌, 생활고…. 그럼에도 한번 짚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의 행복과 평화다. 이것을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낼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간주하는 것들도 관점을 바꿔서 보면 행복인 경우가 많다. 밥 러셀의 책 《Money : A User's Manual》에서 한 농부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멘토가 되어준다.

농부는 자기 농장 안 호수를 관리해야 하는 게 늘 불평거리였다. 풀밭을 초토화하는 살찐 젖소들도 이만저만한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먹이는 일도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며칠 후 중개업자로부터 광고문을 확인해 달라며 농부에게 전화가 왔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보드라운 목초가 쫙 깔린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 이야기를 듣고 있던 농부가 말했다. "마음이 바뀌었소. 농장을 팔지 않겠소. 그 땅이 바로 내가 평생 찾던 땅이오."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행복은 소유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의 것이다. 꽃은 꺾어서 화분에 담을 수 있다. 그러나 봄은 화분에 담을 수 없다. 누리는 것이 곧 지혜다. 장미 한 송이가 자신이 지닌 향기를 다 표현하는 데는 12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말은 곧 하나의 장미 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12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얼마나 피상적으로 누리며, 순간적으로 사는가.

희망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절망을 선언한다. 하지만 이는 대개 우리가 사태를 건성으로,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당사자들에게 나는 설득 아닌 호소를 보내고 싶다.

"뒤집어 보세요. 희망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멀리 보세요. 희망이 아스라이 보일 것입니다.
폭넓게 보세요. 희망이 옆구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꿰뚫어 보세요. 희망이 바닥에서 꿈틀거릴 것입니다." G

글·차동엽(신부, 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장)